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27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3 1982년 10월 2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October 2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회장 후보등록 오늘 마감

등록 1호는 장씨 팀

1팀 더 나올듯, 선거는 1개월후

장순채씨를 회장, 변의섭·이기훈씨를 부회장으로 하는 제18대 한인회장후보 1호가 탄생했다.

홍기만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정한 장후보팀은 홍사무장을 통해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상오 접수처인 한인회 사무실에 등록했다.

한인회의 오정숙간사에 의하면 25일 12시현재 장후보팀외에는 아직 등록한 사람은 없으나 추천서와 후보원서등 관계서류를 가져간 사람이 있어 과거와 같이 단독후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현 한인회부회장인 장영채씨도 회장출마 준비를 하고있다. 1호후보로 등록한 장순채씨와 장영채씨는 형제간이 아니다.

지난 16대회장선거에는 강우석회장팀이 무투표당선 됐으나, 도중 하차했고 이어 과도집행부가 치른 17대 한인회장 선거에서도 현 박인순회장이 장영채, 고순복씨를 부회장후보로 하여 단독출마, 무투표로 당선됐었다.

이미 3주전부터 30명의 추천인등을 모아 선거준비를 해논 장후보는 부회장후보와 선거사무장 물색에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각 후보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장순채(49)씨
본적-전남
전남대농대졸업
1969년 캐나다 이주
코리아타운 번영회장.
경영업체-아리랑식당

◉이기훈(43)씨
본적-경기
경희대학교 경제과 졸업
1972년 캐나다 이민
현재 한인라이온스크럽 이사
경영업체-무나미트로피

◉변의섭(40)씨
본적-경북
한양대학교 전기과 졸업
1977년 캐나다 이주
코리아·타운번영회 부회장
경영업체-Bloor Hardware 대표

◆장순채회장후보.

이기훈부회장후보.

변의섭부회장후보.

수천명 광주학생시위

박광현씨 옥중사망 항의

일주일 계속 경찰과 충돌

(서울-LA지사 경유) 옥중에서 단식투쟁하던 박광현씨(30, 전 전남대 학생회장)의 사망에 항의하는 수천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에는 전투경찰이 배치됐다.

한국정부는 의사의 시체검시 결과 박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박씨가족과 동료들은 박씨가 40일간의 단식투쟁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사망하자 수천 광주학생들은 지난 1주간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해 왔다.

광주 카톨릭정의평화구현사제단 멤버라고 밝힌 한 신부는 광주의 이들 학생들은 지난 12일과 13일 경찰과 충돌했으며, 이때 2-3백명의 학생이 연행됐으나 대부분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성직자는 또 경찰이 지난 15일과 18일 전남대학에도 진입, 두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충돌했으며, 전남대학생들은 박씨의 사인규명을 요구, 중간시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3명의 학생을 정식 구속했다.

탈출 중공조종사

대만망명 허용

(서울 23일=연합) 한국정부는 최근 한국으로 탈출한 중공전투기 조종사에게 「국제관례」에 따라 대만으로 「정치적 망명」을 허가하고, 그가 몰고 온 미그기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옥외무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공조종사는 최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관계당국에서는 그의 요구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갖고, 인도주의와 국제관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이어 비행기의 운명은 국제관례와 전례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이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공조종사가 언제 대만에 인도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라고 말할뿐, 자신도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한 한국당국은 오씨의 탈출배경을 조사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조사내용을 중공정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에 의해 오(25)라고만 밝혀진 중공조종사는 10월16일 한국의 모공군기지에 착륙했다.

◀ 사 고 ▶

편집국장이 바뀝니다.

본보의 전신 《캐너더뉴스》및 《토론토 한국일보》의 편집장을 맡아오신 이석현선생이 오는 1일부로 편집관계 책임을 벗읍니다.

이편집장은 5년7개월간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고정칼럼 〈시와 현장〉, 〈검돌 엣세이〉, 사설등도 집필, 본보를 캐나다 교민사회에 필요불가결한 뉴스매개체로 발전 시키는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읍니다.

앞으로 본사 부설 한인이민사자료실 실장으로서 캐나다 한인이민사 집필을 위한 준비작업과 틈틈히 편집을 도와주실 이선생의 노고에 본사는 본란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편 이편집장의 후임으로서 한국언론계에서 활약하다가 지난 8월말 이민, 그간 본사 편집국에서 근무해온 김운영씨가 선정됐읍니다.

신임 김편집장은 동화통신, 동양통신및 연합통신 편집국에서 다년간 근무해온 고참급 언론인으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됩니다.

오는 1일부로 교체되는 신·구 편집장에게 독자제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임 이석현편집장

◆신임 김운영편집장

토론토 한국일보사

웰페어 11월부터 17.8% 인상

독신자 월$266에서 $313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21일 극빈자들에게 지급하는 극빈자 복지수당(Welfare)을 11월1일부터 1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18만5천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있다.

프랭크·드레 사회복지장관은 21일 주의회에서 5천2백만달러규모의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불경기의 심화로 실직자가 많이 늘어 지금까지 복지수당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고용가능인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용가능한 독신은 현재 약 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월 266달러에서 17.8%가오는 313달러를 받게된다.

그러나 인척이 있는 독신불구자만은 이번 인상혜택에서 제외되며 계속 364달러를 받게된다.

60세부터 64세까지의 독신여성은 현재의 368달러에서 무려 39.3%가 오른 457달러를 받게되며 인상은 11월1일과 내년 1월1일, 2단계로 실시된다.

장기복지수당 혜택자인 독신 평생실직자의 경우도 2단계로 24.2% 올라 현재의 368달러에서 내년 1월부터 457달러를 받게된다.

가족수당을 받는 10만명이상의 온타리오주민들의 대부분은 주택수당을 포함, 약 8.5%의 인상혜택을 받게된다.

드레사회복지장관은 이외에도 1백50만달러에 하는 긴급주택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임시주거를 공하기위한 이프로그램은 주로 메트로·토론토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에는 약 1천2백개의 긴급침대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교회단체및 시당국과 긴급주거가 세워질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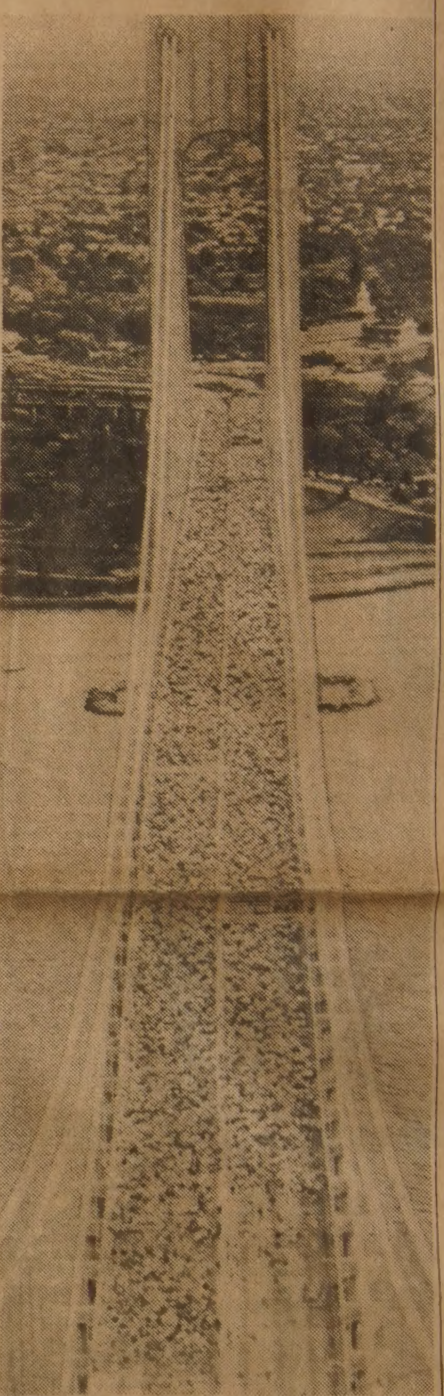
이글톤시장

에트닉신문과환담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은 오는 11월8일의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일 본 토론토 한국일보를 비롯한 각 에트닉 신문인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하오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동안 신문인 30여명과 담소를 나눈 이글톤 시장은 앞으로 3년간 토론토시를 다스려나갈 시장직에 재선될 경우 안전한 이웃, 더많은 직장창출, 서민주택증대, 동등 기회제공을 통한 각종 차별제거, 탁아소 증설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글톤시장에 도전한 입후보자는 모두 11명이나 적수가 될만한 사람은 없어 그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된다.


◆24일 거행된 뉴욕시 마라톤대회에 세계각국에서 모인 1만6천여 건각들이 출발점인 베라자노 다리(부루크린과 스테튼·아일랜드 사이) 위에 집결해 있는 모습.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 화장품 대리점 귀국 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삼육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뭔가 다릅니다. 기간 : 10월22일 ~30일까지
와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읍니다.
•스페샬가격•

• PAMPERS NEWBORN 48's	$15.02
DAYTIME	$16.06
OVERNIGHT 22's	$16.06
TODDLER 24's	$36.76
DAYTIME 60's	$16.95
TODDLER 48's	$16.95
• CREST MINT TOOTHPASTE 18×150ML	$29.95
• CREST GEL TOOTHPASTE 24×50ML	$16.39
• HEAD & SHOULDERS (REG & COND) 12×350ML	$30.80
• WONDRA (SCENTED, UNSCENTED) 12×180ML	$33.19
• SECRET SCENTED 12×150ML	$17.95
• SECRET UNSCENTED SUPER DRY 12×200ML	$19.50
• Y & S SUPER TWIZZLERS 10C BLACK	$2.69
• Y & S SUPER TWIZZLERS 5C BLACK	$1.89
• ACTA	$5.35
• VICKS CHERRY, LEMON, MENTHOL, FRESH MINT	$5.55
• LIFE SAVERS ALL FLAVOUR	$4.59
• PAL LEAF 20×290	$3.09
• O-PEE-CHEE SUNDAE CONE 15C×24	$5.19
• HALLS PRE-PACK	$17.98
• CHOCOLATE REGULAR BAR 36's	$8.99
• NEILSON CHUNKS 4 FLAVOURS	$8.99
• NEILSON TREASURES CARAMELS	$8.99
• LOWNEY NUT MILK, CARAVAN	$8.99
• CADBURY RUM & BUTTER, STAR BAR	$8.99
• HERSHEY ALMOND, MILK CHOCOLATE	$8.99
• HERSHEY REESE CRUNCHY	$8.99
• TRIDENT GUM ALL FLAVOUR	$3.99
• TRIDENT MINT ALL FAVOUR	$3.[illegible]
• DUETS PEANUTS, RAISINS 20×[illegible]	$4.99

선풍적으로 인기중인 하키앨범스티커 새로 입하!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United Konadian LTD.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RD. TORONTO Phone: 251-6578·251-6579 대표: 김현모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0년간 콜레스테롤 연구

심장마비 감소에 기여

10년에 걸친 캐나다 의학사상 최대의 연구가 이제 최종단계에 접어들어 의학에서 가장 난제중의 하나로 꼽히는 「인간의 핏속에 있는 콜레스테롤(cholesterol) 수준을 낮춤으로써 심장병과 심장마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내 놓으려 하고 있다.

성·마이클병원, 토론토종합병원, 해밀톤종합병원의 3개병원 의사들은 11개 미국실험센터도 개입 된 이 국비의 연구사업을 10년전에 착수, 그동안 콜레스테롤이 높은 50만명의 자원자중에서 3,810명을 무작위로 차출하여 계속 실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실험대상자들은 3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자로 여자는 중년에서 남자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조사자료는 내년까지 특별 지하창고에 감추어져 발표되지 않는다. 이 연구자료가 발표되면 70년대에 암과의 관련 때문에 수백만명이 담배를 끊었듯이 우리의 식생활에 혁명적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 가담한 토론토 의사들은 전원 23일 하트·하우스에서 온타리오심장재단이 베푼 만찬회에서 이 재단으로부터 특별 표창장을 받았다.

콜레스트롤은 동맥을 막고, 피의 순환을 느리게 하는 지방질이다. 이같은 현상을 atherosclerosis라고 부르며, 이것이 심장근육과 연결된 혈관에 발생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북미에서는 심장병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병이므로 이번 10개년 연구결과에 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이 실험에 관한 연구결과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심장마비를 방지하게 된다는 결론만 나오면 1)정부에 대해 모든 식품에 콜레스테롤 함유량을 표시하게끔 보다 강력한 압력을 넣게 될 것이고, 2)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멀리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혁이 올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프로판차량 개스유출검사

온타리오주, 15,000대 운행

온타리오정부는 연료를 휘발유에서 프로판개스로 개조한 자동차에서 폭발개스가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정부의 이같은 조사는 프로판으로 개조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주변에서 프로판냄새가 풍기고 있다는 고발을 캐나다 표준협회와 캐나다개스협회에 해 옴으로써 착수된 것이다.

주정부와 협회대변인은 프로판폭발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연료 호스에서 미량의 개스가 유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 현재 전문가가 정부소유 프로판 차량 중에서 프로판연료 호스를 제거해서 냄새가 유출 되는지를 시험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소유 프로판차량은 현재 4,00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프로판 전용비용에 대해 세금을 환불해 주고 있는데 자극을 받아,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 2년동안 무려 1만5천명의 차주들이 연료를 휘발유에서 프로판으로 바꾸었다.

한건물서 나란히 세업체 이전파티

토론토 627 블루어 웨스트 외환은행건물로 이전한 세 업체가 함께 이전 자축파티를 연다.

26일(화) 하오4시반~7시 보광한약방(김낙집), 김명숙회계사무소, 랄프·르빈(Ralph Levine)법률사무소는 공동으로 리셉션 파티를 벌인다.

◆자체방위: 이 장면은 여자가 강간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요령을 보여주고 있다. 시범은 23일 스카보로의 워든·우드·몰에서 한국교포 박종수씨가 운영하는 종박태권도 도장에서 열렸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흙과 사나이 <94>

얼굴없는 死者 ⑱

毛世의 집 찾았으나 "그런사람 없다"

[illegible] 주인[illegible] 우쭐했다. [illegible] 그들을 [illegible] 반장 [illegible] 중년여인이 반 [illegible] 기록을 들여다 보고나서 [illegible] 모씨 성을 가진 사람 [illegible] 구두뒤꿈치로 바닥을 비벼댔 [illegible] 살고있을지도 모르 [illegible] 신고를 하지 [illegible] 모르실테죠.― [illegible] 하여간 그집 [illegible] 가 보시죠.― [illegible] 반장이 앞장서서 그들을 [illegible] 되어 있는 그집은 어 [illegible] 있는 단층 양옥이었 [illegible] 제멋대로 [illegible] 가운데 하지 [illegible]

나였다.

마인은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명패를 쳐다보았다. 「李[illegible]」이라고 되어 있었다.

『모세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주인남자는 나이들어 보였다. 형사들이 밤중에 들이닥치자 꽤나 놀라는 눈치였다.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거실은 난로를 피워놓았기 때문에 훈훈했다. 그들은 거실소파에 앉아 차까지 얻어 마셨다.

『[illegible] 혹시 모세 성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은 또 잘라 말했다.

『친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朴男 그림

[illegible] 사라졌다. [illegible] 찾아왔던 만큼 실망 [illegible] 없었다. [illegible] 아니면 [illegible] 행방불명 [illegible]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illegible]』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시 [illegible]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illegible] 자의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illegible] 죽은 사람이라고요? 아무도 [illegible] 죽은 사람이 [illegible] 없습니다. 이 집에서 5년 [illegible] 가 죽었다거나 하는 [illegible] 적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몹시 불쾌한 [illegible]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까?』 『[illegible] 시장에서 잡화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illegible] 50대의 [illegible] 허탕이었다. 그들은 다시 동회로 [illegible] 주민들의 [illegible]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illegible] 모두 허사였다. [illegible] 도 없었다. 혹시 과거에 살다가 [illegible] 이사가지 않았을까해서 [illegible] 자료를 [illegible] 보았지만 거기에도 그런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름도 주소도 가짜로 적은 것 같습니다.』 [illegible]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illegible] 형사가 한말이었다.

한국, 중공작가초청

한·중 교류확대 일환

◆중공작가 진씨

(서울) 한국의 국제문화협회는 지난 20일 중공국적의 일본거주 작가 진순신부처를 초청했다.

중공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한 예는 작년 7월 서울서 열린 해양국제법회의에 미국 유학중인 중공학자의 참석이래 두번째 일로 알려졌다.

최근 소련인사의 계속방한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때 이번 진씨부처의 초청은 한국정부가 중공에 대해서도 적극외교를 펴는 구체적 징조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진씨방한에 관해 국제문화협회및 문공부의 자세한 발표는 없으나 그들 내외는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문공장관은 소련인 대표도 참석, 18일부터 서울서 열린 세계박물관협의회 아시아지역회의석상 연설에서 "북한학자는 물론 중국대륙의 학자들을 비롯 관심있는 많은 내외학자들이 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국의 공산권 여러나라와의 문화교류확대 일환으로 보인다.

중공작가 진씨는 "한국방문이 이루어져 기쁘다. 원나라의 교역선에 실렸던 중국 도자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나 일본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경주, 부여도 찾아 볼 예정이다. 한국의 국제문화협회가 방한에 대해 이전부터 타진해 왔지만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마무려지기는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북한관계 각종연구

남북비교책자도 발행

(서울 25일=연합) 한국정부는 북한관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내의 천연자원및 산업시설 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있는 약200개의 공장과 기업체의 소재, 역사 및 생산시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앞으로 언론인의 상호 교류 가능성에 대비, 북한의 언론보도 기관의 성격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또한 한국과 북한을 정치, 외교, 경제등 각 분야에서 비교 분석한 책자 6,000부를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및 스페인어로 발간, 금년말경 배포 할 예정이다.

하버드大 뉴스위크誌 야유

▲가끔 무게있는 뉴스보다 센세이셔널리즘을 택해 화제가 되고있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를 하버드대학 「램푼」지가 야유… 뉴스위크표지와 흡사하게 만든 램푼지의 82년 가을호는 호들갑스런 모델들을 등장시켜 핵전쟁이 모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풍자스토리를 커버로 싣고있다. (AP)

고·최 양 신부 환송영 파티

만13년간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으로 활약해 온 고종옥신부의 L.A.전출 환송및 후임 최규식신부 환영 신자파티가 11월5일(금) 하오 7시 프린스호텔 프린스룸에서 열린다. 최신부는 11월3일자로 부임한다.

참가비는 $25.

예보한 바와 같이 고신부 환송 교민파티는 10월30일 하오7시 쎄인·폴성당 강당(83 Power St.×Queen St. 한블럭 동쪽)에서 열린다. 일반교민 다수 참석을 바라고 있다. 회비 무료(본보 10월18일자 참조)

〈식품점〉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제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동부)	291-8317
서울식품(서부)	243-9544

고층건물화재위험

702동중 600동

지난주 시체검시관으로부터 놀라운 새로운 통계가 나왔다. 그것은 다름아닌 토론토의 고층건물 702동중에서 자그마치 600동이 화재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토론토시의 기획시험(Planning examination)국장 라스미·나스와나씨는 1976년 이전에 건축된 빌딩은 스프링쿨러 자동소화장치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와니국장은 지난 8월19일 블루어·스트릿·이스트의 88번지 건물에서 죽은 바셀·캠벨(66)씨의 사인에 대해 증언하는 가운데 79년도에 토론토시에서 화재로 215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소방시설의 개수 없이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난다면 순식간에 215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린상고정기총회

회장 서병수씨

선린상고동문회 정기총회가 23일(토) 옥성빈 동문댁에서 하오8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있은 임원선거에서 회장에는 서병주씨(42회)가 유임, 부회장에는 전기덕(43회)가 선출되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무 최원보(55회), 부총무 정성주(60회), 재정 박원식(55회), 서기 이성운(66회), 체육 이환(52회), 섭외 옥성빈(55회).

이날 참석자들은 금년 연말파티를 12월 첫주말 47회 동문 오영준씨댁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社 告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동포께서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다소불문
기 간: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416) 533-2361
※수표작성 Payable to…는 The Korea Times임.
※봉투에나 수표에 「독립기념관 기금」이라고 쓸것.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모금상황(10월22일 현재)

박창서 $10
이범황 $60

소 계 $70

누 계 $2,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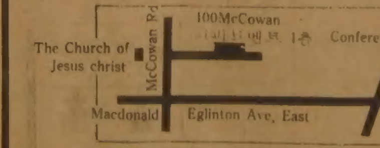
— 토론토 한국일보사 —

창립 스카보로교회

우리 서로의 뜻을 모아 예배장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여러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 ★

임시집회장소: 400 McCowan Rd. 아파트맨트 Conference Room (1층)
시 간: 매 주일 오전 11시
담임목사: 김 희 섭
연 락 처: 김 정 국 ☎ 267-1962
김 희 섭 ☎ 921-8809



모짜르트 음악학원

학생모집

<장학금제도실시>

서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서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881-8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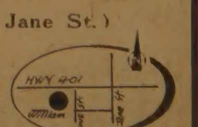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883-9407

위임예배에의 초대

한인(연합)교회는 그간 뱅쿠버 한인연합교회에서 시무하시던 반병섭 목사님을 청빙하여 저희 교회를 아껴 주시던 모든 교우들과 교역자들을 모시고 토론토 서부노회의 주관으로 아래와같이 위임예배를 가지려고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2년 11월 7일(일) 오후 3 시
장소: 한인(연합)교회
69 William St. Weston
(Hwy 401 & Jane St.)
☎: 243-9543



한인교회 당회원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제철계 감원선풍

해밀톤지역 불경기심화

계속되는 불경기 바람이 제철도시 해밀톤에도 세차게 불어오고 있다.

캐나다 최대의 제철회사인 스텔코(Stelco)는 극심한 판매부진과 유럽시장에서의 격렬한 가격경쟁에 직면, 연말까지 힐톤공장에서 종업원 700명을 추가로 감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렇게되면 연말까지 총 3,700명이 감원되는 것이라고 회사대변인은 밝혔다. 지난해 종업원수가 가장 많을 때는 12,300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스틸코사는 연말 2주간은 거의 완전 조업중단하고, 모든 평로(平炉)작업은 11월7일에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스틸코사는 3,700명 감원 및 감원대상 종업원을 언제 복직시킬 것인지에 대해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내년 1/4분기에 가서도 판매경기가 호전될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해밀톤의 고용률이 현재 13.2%이하로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도파스코(Dofasco)사도 11월11일까지 고용원 2,100명을 해고한 후 12월2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조업중단을 한다고 발표했다.

빌·레이비스 온타리오 주수상은 22일 스텔코의 해고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철강제품판매 부진을 막을 대책을 주정부로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실토했다.

해밀톤 외에도 알고마·스틸(Algoma Steel)사도 Sault Ste. Marie와 Wawa지역의 종업원 4,000명을 무기한으로 해고시켰으며, 스틸코사의 웰랜드(Welland)지역 튜브공장도 지난 여름 500명을, 같은지역의 페이지·허사(Page Hersey)공장도 300명을 각각 감원 시켰다.

미국·북한 교역

미국무성 부인

(워싱톤=연합)미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79년부터 직접교역을 하고 있다는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미국무성의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노르먼·C·반스씨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보도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리뷰지가 보도한 북한과의 교역 통계숫자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이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스씨는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으며, 단지 예외로 인도적인 면에서 긴급구조용으로 사용되는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자선단체에 때때로 수출라이선스를 발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도 이범석 외무장관은 23일 국회에 출두, 이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7월1일 미상무성으로부터 직접 교역이 없다는 공한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경제주간지인 리뷰지는 최신호에서 일본 도꾜에서 입수된 미상무성 자료를 인용, 79년부터 81년 사이에 미국과 북한의 쌍무교역량이 31[illegible]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모기지 안내

회사별 이자율

이 리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어느회사의 몰기지를 얻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몰기지를 얻기 위해 시장에 나왔다면 당신이 얻기로 최종결정한 몰기지의 이자율이 최근에 설정된 율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몰기지 대출업자들은 항시 이율을 자 조정하기 때문이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캐나다(중앙)은행률이 지난주에도 다소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주요 금융기관들도 대출금리를 하락했다. 따라서 일부 몰기지율도 아래 차트에 표시된 율보다 지금은 낮을지도 모른다.

아래 몰기지율은 좋은 위치에 질이 높은 부동산에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라임·래이트이며, 10월21일 오크빌의 Fiscal Agents가 작성한 것이다.

☎ 533·2361

Mortgage Lender	6 mths	1 year	2 years	3 years
Trust companies				
Bayshore Tr.		15 op		
Cabot Tr.		14½	15¼	15½
Canada Tr.	14 op	14	15	15
Canada Perm		14	15	15¼
Central Tr.		14	15	15¼
Community Tr.		14	14½	
Credit Foncier		14¾	15¼	15
Crown Tr.	14½	14	15	15
Fidelity Tr.	—		r/o	—
Financial Tr.	—	17op	—	—
Guardian Tr.	—	15	—	15½
Guaranty Tr.		14	—	16
Monarch Tr.	16 op	17 op	18op	18op
Montreal Tr.	14	14		16
Morgan Tr.	—	14¼	15	15¼
National Tr.	15op	14½	15	15½
Premier Tr.		14¼	14½	14½
Seel Mtge	15	16¼	16½	16¾
Shoppers Mtge		14	—	—
Sterling Tr.	—	14	15	15½
Royal Tr.	14¼	14	15¼	15
Vanguard Tr.		14¼	15¼	15½
Victoria & Grey	15op	14¼	15	15
Banks				
Cdn. Imperial		14	15¼	15½
Bank of Montreal	—	[illegible]	15¼	15
National Bank	—	14½	15¼	15½
Bank of N.S.	—	14½	15	15½
Royal Bank	—	14½	—	15¼
Toronto-Domin.	—	14¼	15¼	15½
Life companies				
Dominion Life	—	—	—	15½
London Life	—	14½	—	15½
Mutual Life	—	14½	15¼	15¼

ro = RATES ON REQUEST op = OPEN — = COMPANY NOT QUOTING
r/o = RENEWALS ONLY
** = COMPANY'S CLIENTS ONLY

〈독자 투고〉

나의 상념

서윤정(웨스트·힐 거주)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갈증을 일으키게 한다. 추위를 느낄땐 이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하고 도사려지고, 갑자기 따뜻해지면 "조금만 더…"하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게된다.

캐나다날씨가 여자의 마음같다는데, 정말인 것같다. "추운 건 싫어…" 하면서도 다가오는 자연의 섭리에 허탈해짐을 느낀다.

하느님은 정말이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에 대한 오묘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캐나다 이곳이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우선 살아가는데 감사함을 느낀다.

한국의 날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뚜렷하지만 항상 탁한 공기를 못마땅해 왔었고, 나의 건강도 좋지가못했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많이 건강해 짐을 느낀다. 해서 나의 생활의 터전인 이 도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다.

◆

사람들은 줄 줄을 모르고, 바라기만 한다. 나 역시 가식적인 정에 빠져 버리고, 쓸쓸함을 느끼면서도 정에 억매어 물러터진 나로 변화된다.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될때, 모든 있었던 헛점을 반성하게 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나 보다.

어느 작가가 그랬듯이,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번은 가져야 된다고 믿는다.

외로움이 느껴진다고 다른 무엇을 찾으면서 자신을 달래려 하지 말고, 외로움 자체에서 뭔가 나은 자기 성장을 위해 바르고 강한 정신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단순한 나를 내가 들여다볼 때, 이렇게 스물이 훨씬 넘어섰는데도 아직 인생에 대해 까마득하니 어찌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까 두려워지기도 한다.

힘들다! 해서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가 보다. 남자가 필요하다기보다 어차피 같이 살게 돼있다고 믿고 있다. 이 상대성의 오묘한 원리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남자와 여자.

서로가 의지하며 살게 돼있음을 모든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진다.

아직 난 결혼을 안했기에 생각을 옮기기엔 어설프지만 나의 사상에서는 이혼이라는 헤어짐은 생각조차 할수가 없다.

어차피 살게돼있는 인생이라면,더우기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임을 안다면 실존적인 의식과 함께 자국이 없는 인생으로 성공해야잖는가?

누구를 향해 탓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단지 산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고와서 그런지 나에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을 뿐이다.

다른 생각으로 옮겨야 겠다.

난 참 애착심이 강하다. 그런 만큼 절제성도 강하고, 결백성 역시 강하다. 뭔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보수적인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 세상에 이해못하는 많은 것들, 그러나 참 자유롭게 많은 것을 생각해 내고 비우고있다.

절망적인 일도 아무렇지않게 흘려버리는 기질이 있다.

어차피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는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자기를 자기만이 알고 있으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삶에 더욱 애착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싱싱한 나무를 보며 내가 살아감을 느낀다. 더욱더 이 평범스런 나의 삶에 노력을 하면서 뭔가 나만의 독특한 성숙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의生涯영화 양해없이 제작"

에리자베스, ABC-TV상대소송

〈뉴욕—UPI〉여배우 에리자베스·테일러가 「본인의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그녀의 생애를 주제로한 TV영화방영을 막기위해 ABC—TV를 상대로 21일 연방지법에 소송를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ABC와 데이빗·패라딘 TV제작회사.

『ABC영화는 불법』이라고 전제한 테일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에리자베스·테일러이야기」라는 영화에서 나를 닮은 여배우를 출연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영화속에 나오는 여러가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가 실제로 내가 사용했던 것처럼 믿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사건과 대화를 새로 꾸며낸 것을 시청자들에게 다큐멘트드라마라고 속여 방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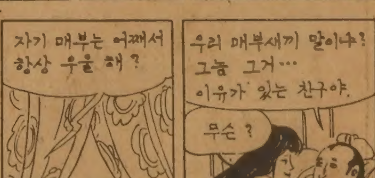
『이런 다큐멘트드라마 수법은 한배우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권리침해의 새형태』라고 말한 테일러는 이번소송은 이에대한 배상뿐 아니라 이 영화의 선전및 방영금지명령을 얻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 「에리자베스·테일러이야기」제작은 불법행위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테일러양이 21일 ABC—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UPI〉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휘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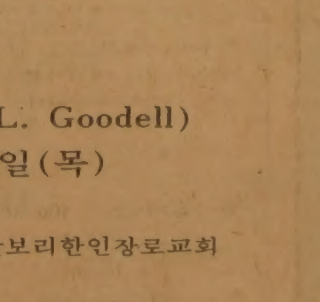


부흥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데니스·굳델(Dr. Dennis L. Goodell)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부흥회를 준비하였읍니다.
굳델목사님의 증지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북미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으며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읍니다.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과 병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마음 준비하시고 꼭 시간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설교하시고 우리말로 통역해 드립니다. 영어를 잘 아는 젊은 학생들도 특히 초대합니다.

다 음

강사 : 데니스·굳델목사(Dr. Dennis L. Goodell)
일시 : 1982년10월31일(주일)～11월4일(목)
매일오후7시30분
장소 : 10월31일(주일)부터 11월3일(수)까지는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borough)
11월4일(목)은 Faith Baptist Church
(3837 Lawrence Ave. E. Scarborough)



갈보리한인장로교회당회장 목사 안병한 올림
☎ : 755—7979, 431—3635, 431—7034

영원의 방랑객

— 이임하는 고종옥신부와의 인터뷰

성직자란 직업도 고충의 하나는 인간이면서 가장 인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꼽는다면 지나친 일일까.

10월말로 13년간의 토론토생활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고종옥신부(52)를 만나보면 그는 성직자 이기엔 너무도 풍부한 인간미를 지녔고 예술가나 작가가 되기엔 너무 종교적이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고신부는 63년 오타와의 도밍고 수도회에서 캐나다생활을 시작, 몬트리얼을 거쳐 69년 8월 토론토 한인성당신부로 전임하여 당시 신자 37명, 주일헌금 $15.27규모이던 성당을 신자 2,599여명, 주일헌금 $3,000규모에 북미주에서 한인사회 유일의 자체성당소유 캐톨릭교회로 키운 장본인.

그는 지금까지 자전적 장편 한글소설 〈사랑의 지도〉, 〈이세상의 이방인〉및 캐나다사목생활을 담은 꽁뜨 수상집 〈고향에 못 갈지라도〉를 냈고 82년초부터 토론토·한국일보에 새 소설 〈영원의 방랑객〉을연재하다 중단한 문필가로 음악, 미술에도 조예가 깊은 예술애호가 이다. 영어보다는 불어가 유창하며, 68년 불어로 쓴 소설 〈예수없는 십자가〉은 1년6개월간 27,500권이 팔렸다.

해군및 해병대군무중 6.25 참전으로 부상했으며, 57년 가톨릭대학 철학과 입학, 58년 프랑스 낭시(Nancy)신학대학 유학, 63년 졸업과 동시 신부로 서품 받았다.

69년 토론토한인성당 주임으로 전임, 71년 캐나다 한인 최초의 연방 복합문화성자문위원으로 임명받아 3년간 봉직하면서 한인의 복지향상 한국문화보급 등에 활약이 컸다.

그의 로스엔젤레스행이 발표된 후 본지는 고신부와의 인터뷰를 그가 평소 즐겨다니던 토론토 중심가의 프랑스 식당〈몬트리얼〉에서 가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고신부님의 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중의 하나는 역시 지금까지 내놓으신 저서들을 읽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신부가 되기까지의 과정 특히 사랑하던 여인과 종교와의 갈림길, 그리고 그 사랑이 승화돼가는 과정이 인상에 남더군요. 지금 50여년 살아오시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저는 내 인생이 참 기이하다고 생각 합니다. 늘 계획과는 반대로 되었거든요. 가장 행복한 가정인이 되기를 꿈꾸었으나 신부가 되었고, 졸병으로서 6.25를 지날 때 내 조국동족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각오했었는데 뜻밖에 프랑스로 가서 몬트리얼을 거쳐 토론토로 왔으니까요.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이겠지요. 그러나 그 섭리는 내게 상상못할 행복감을 주었읍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무한히 좋으신분 -하느님- 에 대한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입니다.

●〈숙〉이란 여성과의 사랑얘기는 퍽 감동적이었읍니다. 아마 신부님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의 하나가 아닌가 싶읍니다.

(그녀와는 78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물론 지금은 담담한 심정이지요.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날때 더욱 뭉클해져요. 인간에는 존재성의 연장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신부는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는 규칙은 여자를 포기한다는 고통보다도 부성애를 포기한다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 여자의 아이를 보면 "내가 결혼했더라면 저 애가 내 아이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고통이 와요. 그녀의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물론 숙이란 여성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지요.

●문: 신부님이 뜻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요?

사랑이란 소유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날마다 더욱 아름다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의 근본이요, 교회가 지향하는 바로 그런것이지요.

●문: 사목생활을 하시는 동안 인간적인 흔들림,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 던가 한 일은 없으신지요?

답: 잔느(프랑스유학시절 만난여성)얘기가 내 책을 통해 공개되자, 30여명의 여성들이 항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숙〉을 사랑한다 해 놓고 어떻게 또 잔느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말예요. 그런가하면 인간적인 하트를 가진 신부님을 너무 추앙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질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질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 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이성도 개입되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균리가 있어야 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 윤리성의 질서를 지키고 이성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누릴수는 없지요. 욕심을 포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항상 선택의 과정에 있어요. 종교의 궁극목표는 인간해방 입니다. 그러나 해방이란 초월의 경지까지 가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의지,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남에 해 안되고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주관적인 행복을 갖추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부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고달프고 벗이 없다는 생각이 든 적은 있었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그리움이 끈덕지게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의 윤곽이 없어지면서도 참 뭐라고 이름 드는 지모를 막연한 그리움의 본성이 밑바닥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40대에서 인간적인 것을 그리워 하면서도 두려워하며 탈피하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50대가 되니 내안의 모든 인간성을 버릴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대로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인제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 신부님께 비친 한국이민자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답: 한국의 한국인과 이민 온 한국인의 모습은 역시 달라요. 우선 심리적인 너그러움이 없어요. 이민사회에서는 우선 먹기위해 직장, 비지니스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콤플렉스, 과거의 자기를 동경하는 마음,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1)사고하는 경향이 없어지고, 2)말이 많아지고, 3)특정인물을 즐겨 비난하며, 4) 융화가 잘 안되고, 5)인정받기 위해 단체가 많아지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지요.

차차 나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도 이민의 정착과정중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교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합니다. 최초의 양로원 걸립기금 워커톤 같은 것 아주 좋게 봤어요. 목사도 신부도 한데 어울려 걸었거든요. 이런 공동사업 전선을 자꾸 펴야지요.

●문: 얼마 안 있으면 토론토 한인회의 회장선거가 있게 됩니다. LA만 하더라도 한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토론토를 비롯한 교민사회의 지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요?

답: 이상적지도자는 스스로 부족감을 느끼는 인격이 있어야 하며 남의 의견을 듣고 절충할 줄 알며 지배야욕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좋아해서 누구와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관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로 본다면 그 사회의 지도자인 신부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갖고 생활하고 있읍니다.

1)개인이든 가족이든 특정그룹과 유별나게 친하지 말고 융화를 위해 다소 외로와라.

2)문제는 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일이 잘 안될때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려라.

3)떠도는 말에 변명말라. 오해는 시간이 풀어준다.

4)신자들에 기대말라.

5)돈 관리에 정확하고 공개적이어라.

6)신자들의 불만을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하라

7)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생각말라.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문: 앞으로 한인들의 이민수를 늘리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제 서명이 개입하여 캐나다에 이민오게 된 어림수만도 2,700정도는 되리라 생각해요. 캐나다는 백년후의 인구통계까지 다 갖추어 놓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민을 늘립니다. 분명한 것은 백인숫자가 늘어야 황인종의 숫자도 늘린다는 것과 범죄율이 높은 민족은 이민을 줄인다는 것 입니다. 최근들어 한인이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캄보디아·월남난민이 늘은 때문이예요.

한국사람들은 근면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요. 그 반면에 문서위조, 공무원에 뇌물주는 것이 많은데 이런 죄는 캐나다가 아주 싫어하는 죄들이므로 건수가 적어질수록 이민 증대에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문: 지난번 로이·톰슨홀에서도 신부님을 뵈었지만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으시다는데 따로 공부를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답: 공부는 신학·철학을 주로 했지요. 잠깐 불문학 공부를 하기도 했고,

예술과 종교는 피부적 반응은 반대 일지 모르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원칙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지난번 웨이사이드 화랑에서 개막 6인전때 나체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누군가가 "신부님 눈요기 잘 하십니다"하더군요. 그때 저는 "저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고 대꾸했어요.

●문: 해외에 오래 사시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같은 것은 안느끼시는지요.

답: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서양에 사는 이색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피부에 저려진 한국적인 것 버릴 수 없나보지요. LA로 가게 되는 것도 한국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것 인가봐요.

●문: 지금까지 신부님이 혼배성사 시킨 커플이 약500쌍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그중 혹시 헤어진 커플도 있나요? 그리고 훌륭한 결혼생활의 비결같은 것이 있다면?

답: 한 서너커플 헤어지긴 했어요, 그외에는 대부분 잘들 살아갑니다. 저는 여자의 매력은 부지런하고 늘 가꾸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화초이며 남편은 그것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또한 여성은 어머니같은 너그러이 감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남자의 매력은 넓은 아량, 관용이 있어야 하며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양보할 줄 아는데 있다고 봅니다.

멋이란 인생의 피곤함을 씻어주는 향기와 같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문화창조의 모체입니다. 문화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격식이요, 격식은 멋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대화의 방법을 모르고 멋을 지켜갈 줄 몰라요.

결혼을 했건 안했건 꿈을 위해 걸어가는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구원과 통하는 길 이라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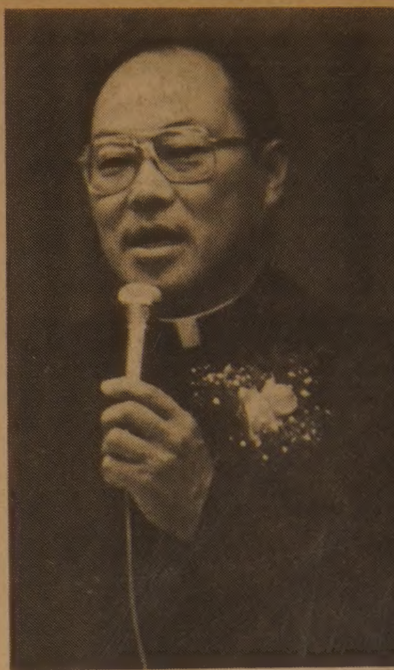
●문: 끝으로 토론토 교민사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은?

답: 토론토는 제 나이 38살때부터 52살때까지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낸 곳 입니다. 처음에 올때만 해도 이곳은 내가 뼈를 묻힐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지난 13년2개월간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봉사를 맘껏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농업이민을 추진, 퀘벡주에 한국인 영토를 만들어 보자는 꿈은 천주교회관 하나로 그쳤지만 어디가서도 토론토는 제 가슴에 살아있을 것 입니다. 모두가 남의 의견을 받아 줄 아량을 가지면 교민사회의 앞날도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숙의 척도는 관용과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래 부장-



◇고종옥 신부

새 임지에서 의욕 불태울터

"사랑은 소유보다 위하는 마음"

~작중인물 얘기로 화제꽃 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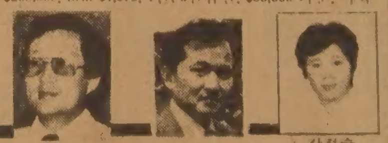
구독 신청은

(416)533·2361

고급 레스토랑
GRANADA에서
만납시다!
■조용한 분위기
■다정한 서비스
★캐네디안 음식
★일식 전문
★한식(불고기, 갈비정식)
920 Yonge St.

●오후 6시 이후
지하실 주차장 무료
●주말 오후 6시
이후는 무료
월~금 : 오전 8시~새벽 1시
토 : 오후 5시~새벽 1시
☎923-3060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점쉬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점쉬이 있는 대형 3 Bedroom되인 비늘신불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1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될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황용현 286-1548(R)
이식범 686-0207(R)
김정숙 241-8918(R)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1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파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r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그 밖 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286-1548(R) M3B 1Z3

털코-트 뭘 아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한인신용조합에서는 6주년을 맞이하여 '82년도 목표액인 자산 $3,000,000을 달성하고, 보다 나은 대 조합원 서비스를 위해 Canada Savings Bond 판매및 RRSP, RHOSP 창구를 마련하여 봉사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 Canada Savings Bond
이자율 : 년12%
한도액 : 일인당 $35,000
(3인 가족이면 3× $35,000=105,000)
접수일 : 10월25일부터

•RRSP
•RHOSP
11월1일부터 취급 예정임

●일반정기예금

비고 \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30일	11.5%	10.5%
90일	12.0%	11%
180일이상	12.0%	11%

•오뚜기정기예금 6개월 11.75%
1년 11.75%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533-9387/9388
641A Bloor West Tor.

한국일보

不動產투기 강력規制

정부, 1次대책　통장買入·양도稅탈세 重點

開浦·果川등 住公·民間아파트

정부는 21일 金埈成부총리 주재로 주택경기 대책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한편 현재 일부제한된 지역에서 나타나고있는 아파트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1단계조치를 이날부터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가라앉지 않을때는 제2단계조치로 부동산투기억제지역고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했다.

이날부터 실시된 세무조사의 대상은 ①住公아파트의 전매행위 ②민간아파트 전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세행위 ③복덕방의 위법적인 투기조작행위등이며 조사대상지역은 서울開浦洞, 果川등지의 국민주택규모(실평수 25.7평)이하인 住公아파트 6천세대중 일부와 서울 開浦洞, 狎鷗亭洞, 大峙洞, 蠶院洞등지의 국민주택규모이상인 대형 민간아파트 1천3백세대중 일부이다.

정부는 세무조사결과 드러난 ▲전매행위자(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당해주택의 환매와 1천만원이하의벌금(住促法38조및52조) ▲탈세행위자(민간아파트전매)는 세금추징 ▲위법 복덕방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住促法47조및51조)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재를하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프리미엄을주고 여러개의 통장을 사서 직접투기에나서거나 농간을부려 투기를 조장한 복덕방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방침이다.

金埈成부총리와 姜慶植재무장관 金宗鎬건설장관 金聖培서울시장 李春九내무차관 安武赫국세청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는 세무조사강화 이후에도 투기가 진정되지않을때는 2단계 조치로 개포동, 압구정동, 반포동, 여의도동, 果川, 高德지구등 투기우려지역을 부동산투기억제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고시되면 내무부 시가표준액이아닌 국세청 조사가격을 課標로하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된다.

정부가 조사한 강남일부지역의 아파트 프리미엄과 주택임대료 상승추세는 별표와 같다.

◇有名會社 아파트가격 (單位 萬원)

名稱	位置	坪型	分讓價	프리미엄 6·28	프리미엄 10·16	增減
開浦住公 2次	開浦洞	22	2,430	600	950	350
宇成 4次	瑞草洞	32	3,360	400	600	200
現代 12次	狎鷗亭洞	59	7,630	2,500	5,500	3,000

◇住宅賃貸料 상승추세

區分	81·12	82·6	82·10
單獨住宅(서울)	100(100)	112·2(114·2)	124·4(130·3)
아파트(서울)	100(100)	120·4(126·0)	144·1(155·4)

◇追窮받는 金부총리　21일하오 국회經科委에서 金埈成부총리가 경제조치의 鑑發과 관련, 經濟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한 의원들질문에 답변준비를 하고있다.

"秋穀수매량 작년水準 農資金회수 延期검토"

국회 12개常委 질의·답변

국회는 21일 交遞委를 제외한 12개常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의 現況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그동안 의료보험 一元化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측이 保社部에대한 現況보고청취와 질의를 거부, 3일간 空轉해온 保社委는 警保문제에대한 與野간의 타협을 보지못한채 일단 회의를 열어, 당초 예정되었던 勞動部의 現況보고를 들었다.

[經科委] 金埈成부총리는 『金利引下와 中小기업자금방출및 地方道포장등 각종 경제조치가 취해졌기때문에 景氣加速化를위한 추가조치는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히고 『서울의 3개지역에 최근過熱投機가 있었지만 惡性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러 투기억제조처를 취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요될 秋穀收買자금은 작년수매량 6백만석을 기준으로 6천억원線이 될것』이라고 말해 추곡收買量이 작년수준을 크게넘어서지 않을것임을 示唆하고 『수매자금은 韓銀借入대신 糧穀證券을 賣勢로 발행하거나 糧特자금을 회전사용하여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 『내년도 公共料金인상은 물가상승수준 정도인 5%이내에서 수습하겠다』고 덧붙였다.

[農水產委] 朴鍾汶농수산장관은 營農자금의 상환문제와 관련, 『年末까지 상환키로되어있는 영농자금의 일부를 내년까지 연기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의 秋穀이 豊作으로서 집중적인 시장出荷가 예상되기 때문에 秋穀價의하락등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영농자금의 상환을연기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다.

朴장관은 이어 『내년에 개장될 可樂洞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을위해 市場관리公社를 설립할 계획이며 유통교육의 확립을위한 流通개발훈련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保社委] 鄭漢株노동부장관은 『賃金의조정은 勞使간의 자율적인 조정을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産災보험혜택이 농수산물 하역근로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영세한 失業者에대해서는 法定영세민과 의료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法定 영세민가운데 20세이상 40세미만을 就業에 우선토록하겠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또 『우리나라 大企業主의 勞組기피사고방식때문에 百大기업가운데 29개업체가 아직勞組결성을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란 호메이니후계 선출위해 會議體를구성

【런던特電=聯】 이란은 오는 11월 혁명지도자 루홀라·호메이니옹(83)의 후계자 선출권을 보유한 회의체를 구성하기위해 선거를 실시할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알리·아크바르·나테크·누리 이란내무상은 이날 테헤란방송을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호메이니옹의 승인을얻어 후계자선출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기위한 전국적인투표를실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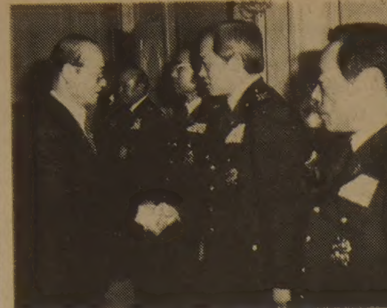
社會漫評

멀리하고 읽어보자…

"警察자세 革新긴요"

物質萬能풍조 팽배… 犯罪 날로늘어

全대통령, 경찰의날 諭示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최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경제규모의 高度化에따라 치안의 需要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질萬能풍조에서 오는 범죄의 多種化, 과학발달에 따른 범죄숫법의 지능화, 도시의 팽창이 가져온 새로운 치안문제, 그리고 교통량의 격증과 청소년 비행의 증가추세는 모두 경찰업무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金相浹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諭示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시대의 指標인 정의사회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것도 法과 질서의 守護者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건전한 경찰조직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경찰내부에서 지난날의 낡은 因襲과 對民봉사의 저해요소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警察像을창조하고자 하는 개혁의 기풍이 일고있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같은 경찰자세의 혁신운동을통해 경찰관 여러분은 현대경찰로서의 예지와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警察像을 확립할수 있게 되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警察간부초청 오찬

全斗煥대통령은 21일낮 경찰의날을 맞아 安應模치안본부장등을 비롯한 각市道경찰국장들 17명을청와대로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치하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盧泰愚내무장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美텔리비데오電子회사의 黃珪彬사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美國스티글러 敎授 노벨經濟學賞 선정

市場기능·規制연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선정된 조지·스티글러시카고대학교수가 20일 친지들의 축하전화를 받고있다. 【시카고AP電送=聯】

【스톡홀름AP聯】 스웨덴과학원은 20일 미국 시카고대학의 조지·스티글러교수를 정부규제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근본적으로규명한 공로로 82년도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티글러교수(71)는 워싱턴주 렌턴시태생으로 46·47년 브라운대학에서 교편을 잡은뒤 47~58년 콜럼비아대학교수를 역임했으며 58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봉직해왔다.

스웨덴과학원은 스티글러교수가 산업구조와 시장기능 및 정부규제의 원인과 결과를 근본적으로 연구한 공로로 경제학상을 수상하게됐다고 선정경위를 밝혔다.

스웨덴과학원은 스티글러교수가 시장과 산업구조에 관한 응용연구분야에서 선구자적업적을 쌓아왔다고 말하고 경제정보와 경제규제에관한 연구의 창시자이자 경제와법의 상관관계연구의 선구자중한사람으로 인정받고있다고 설명했다.

스티글러교수는 지난 40년대에 이미 미국내에서의 규제법 특히 임대규정과 최저임금규정의 영향들을 연구, 이같은 규정이 잠정적으로는 바람직한효과들을 거둘수 있는반면 장기적으로 뜻하지않은 부작용을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第一毛織 임직원 1千9百99萬원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1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第一毛織任職員一同=1천9백99만4천4백58원 ▲大成重工業任職員一同=5백만5천5백42원

大成重工業 임직원 5백만원

▲二和工營(株) 대표이사 崔三奎씨外임직원一同=2백24만6천9백10원

二和工營(株) 崔三奎대표 外 2백24만원

▲三慶貿易(株) 대표이사 金鉉求씨外종업원一同=1백52만2천1백30원

三慶貿易(株) 金鉉求대표 外 1백52만원

▲韓國麻紡績(株) 사장 宋儒根씨外임직원一同=1백5만1천5백원

韓國麻紡績 宋儒根사장 外 1백5만원

▲사단법인 南서울公園墓苑이사장 李根燮씨外임직원一同=66만6천5백원

南서울公園墓苑 66만원

▲사단법인 韓國道德科學硏究協會이사장 朴東燮씨外會員一同=52만4천5백원

韓國道德科學硏協 52만원

▲L·C·I禮式場사장 金承基씨外직원一同=34만1천원

LCI예식장 일동 34만원

▲大林洞평강교회=20만원

大林洞평강교회 20만원

▲長禧產業(株) 대표이사 崔善文씨=20만원

長禧產業(株) 대표 20만원

【大邱지사접수】

▲(종단) 대순진리회大邱지부 칠성2가지구 대표 정현기씨外道人一同=24만원

대순진리회 (大邱지부칠성2가지구) 24만원

▲(종단) 대순진리회大邱지부 비산5지구 대표 이순옥씨外道人一同(2차분)=20만5천5백원【〃】

〃 (大邱지부비산5지구) 2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大邱지부 대명2지구 대표 오태순씨外 道人一同=20만원【〃】

〃 (大邱지부대명2지구) 2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경기도성남시신흥동2지구 대표 남궁은씨外道人一同=20만원

〃 (성남 신흥2지구) 2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신길동 제4지구 대표 송상선씨外 道人一同=19만원

〃 (서울 신길4지구) 19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지구 대표 강전대씨外 道人一同=17만원

대순진리회 (서울청량리2지구) 17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 동대문구전농동 3지구 대표 장봉희씨外道人一同=16만4천원

〃 (서울 전농3지구) 16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성동구금호동 2지구대표 박옥남씨外道人一同=15만8천3백원

〃 (서울 금호2지구) 15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동대문구전농동 2지구대표 장춘자씨外道人一同=13만원

〃 (서울 전농2지구) 13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大邱지부 삼덕3가동 대표 박필순씨外 道人一同=13만원【〃】

〃 (大邱지부삼덕3가지구) 13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大邱지부 중동지구 대표 신춘이씨外 道人一同=11만6천원【〃】

대순진리회 (大邱지부중동지구) 11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경기도성남시창곡동1지구 대표 이창봉씨外道人一同=11만원

〃 (성남 창곡1지구) 11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大邱지부 수성동6지구 대표 김일조씨外 道人一同=10만3천원【〃】

〃 (大邱지부수성6지구) 1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達城郡嘉昌面 대표 유차점씨外 道人一同=10만4천원【〃】

〃 (達城郡嘉昌面) 1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경기도안양시안양지구대표 구자순씨外道人一同=10만3천원

〃 (안양 지구) 10만원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동대문구전농동 5지구대표 한병수씨外道人一同=10만2천원

〃 (서울 전농5지구) 10만원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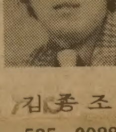
영국 스트래트포드·어폰·에이본 마을의 聖三一聖堂에는 셰익스피어의 묘가 있다. 이 묘를 한때는 발굴해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영국의 기개높은 시민들을 흥분케한 일이 있었다. 그 묘속은 텅비었고 그 위대한 文豪는 실존하지않았다는 異說때문에 일어난소동이었지만 기어이 그 묘는 발굴되지 않았다. 요즘은 그이웃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死因을 두고 독살이다, 아니다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나폴레옹의 시신이 든 石棺은 파리 앵발리드宮內 성당안에 안치되어 있고 관광객이 언제나 관람할수 있다. 廢兵院으로 불리는 이 宮안의 軍事박물관에는 나폴레옹에 관한 모든것이 보관,진열되어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끄는것은 그의손톱과 머리카락이다. 나폴레옹 독살설주장자는 이손톱을 분석해보면 사실여부를 판별할수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박물관당국이 그런짓은 허가치 않는다. ▼파리의 전쟁박물관에는 프랑스가 치른 모든 전쟁의 기록과 그때의 軍旗, 장비, 무기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獨立박물관이 세워지면 그에 따른 각시대별 독립전시관이 세워지면서 6·25당시의 기록을 담은 전쟁박물관도 하나 들어설계획이라한다. 우리國軍부대중에는 더러는 6·25전란에서 어떻게 그부대가 싸우고 이겼는가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조그마한 「기념관」을 영내에 설치하고 있는데도 있다. ▼프랑스 석학인 레이몽·아롱은 한국동란을 분석하는데서 시작하여 그의 「평화와 전쟁」이란 대저술을 남겼다. 이처럼 엄청난 전란을 스스로 겪고도 아직 우리는 이렇다 할 전쟁박물관 하나 갖지 못했다. 아픈상처는 잊는것만이 반드시 상책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에 흩어져있는 6·25의 흔적과 기록물을 찾고 모으는 활동쯤 있어 마땅할듯 하다. ▼그전쟁때 노획한 金日成의 승용차가 釜山부두에 도착했다 한다. 당시 육군 제6사단이 노획한것을 「이승만」전대통령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워커장군의 미망인에게 증정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 차가 고장을 일으켜 고물상에 넘어간것을 유엔 한국참전국협회 池甲鍾회장의 주선으로 다시 사들여온 것이라 한다. 누구든 이를 보면 6·25의 분노를 회상치 않을 사람은 없지않을까? 통분의 기념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金正日로해서 黨·政·軍내부 숙청이 대대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또 金日成이 70세를 살아온 날수와같은 2만5천5백개의 벽돌로 「주체사상탑」이란것을세웠다고도 한다. 모두 새전쟁을 꿈꾸는 부전자전의 소행같기만 하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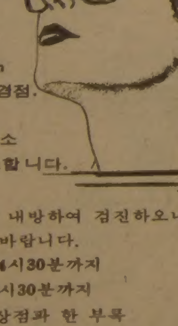


김 秀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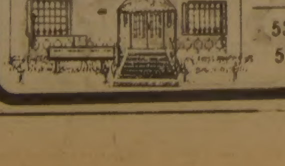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 · 수리 ·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충국인성의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中共、對臺灣 공식交易

WP紙보도、福建省 4개항구 開放

【워싱턴=聯】臺灣과 마주 보고있는 중공의 福建省당국은 지난 30년동안 견지해온 무력을앞세운 대만통합전략에서 벗어나 교역과 鄕愁에 호소하는 평화적 방법을채택 하고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0일보도했다。

이 신문의 마이클·와이스 코프기자는 福州發기사에서 福建省당국이 지난 1년동안 라디오·시계 우산등을 어선에싣고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대만상인들의 무역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대만과 1백60㎞도 떨어지지않은 福建省당국이 4개항구를 특별무역항으로지정, 대만과의교역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말했다。

美·蘇,實戰방불 모의海上戰

東海-北太平洋서 기동훈련중

蘇 美艦에 假想미사일
美 對蘇반격作戰 단행

【東京=聯】 이달초 東海와 北太平洋에서 원자력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등을 중심으로 한 美함선단이 대규모 기동훈련을 하고있을당시 소련은 백파이어, 베어, 배저機 등 1백30대이상의 각종 전투기및 폭격기와 太平洋함대소속 원자력잠수함등을동원, 훈련중이던 美함정에대해 미사일발사 가상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도 이에 대응, 對蘇반격 모의훈련을 단행함으로써 실전을 방불케하는 모의해상전이 벌어졌었다고 산께이 (産經) 신문이 워싱턴발로 21일 보도했다。

산께이는 이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美7함대와 제3함대를 총괄하는 폴리美太平洋함대사령관이 샌프란시스코의 네이비·리그(美해군지원민간조직)에서 행한 강연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폴리사령관은 『東海는 사실상 蘇聯海가 되다시피하여 서방세계에 대한 이 지역의 위협은 어느때보다도 긴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고 산께이는 전했다。

산께이는 또 폴리사령관의 말을인용, 이번 美함대의 훈련당시 소련의 각종전투기및 폭격기는 육안으로 목격할수 있을정도의 근접거리에 있었을뿐만 아니라 동원된 비행기수도 1백30대이상이었으며 소련잠수함도 수중에서 美함대의 모의공격을 대상으로한 추격작전을벌였다고 보도하고 소련군이 美軍에대한 가상공격을 해옴으로써 훈련은 소련에 직접대응하는 형태의 모의공방전이 됐다고 말했다。

폴리제독은 특히 가상훈련이기는하지만 美蘇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군사적 역량을 실제로 관찰해가며 응전하는 형태의 훈련을 전개한것은일찌기 없었던일로 그만큼 소련의 위협에 가까와지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산께이는 덧붙였다。

산께이는 특히 폴리제독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본결과 수도 서울이 북한의 로킷트 사정거리에 있을뿐만아니라 위협이 심각하다는것을 알게 됐으며 따라서 이지역의 安保를 위해서는 美태평양함대소속 航母기동부대의 신속한 이동능력이 중요한요소』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곡하는 어머니 지난13일 폴란드의 노바·후타에서 벌어진自由勞組지지데모도중 진압경찰의 발포로 피살된 自由勞組員 보그단·블로시크 (20) 의 어머니 에레나여인이 20일 아들의 관위에 쓰러져 통곡하고있다。【노바후타 (폴란드) 20일AP電送=聯合】

北傀、黨·政·軍 대숙청

金正日·吳振宇일파 主導

【東京=聯】최근 北傀에서는宗派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 분쇄라는 구호밑에 黨·政·軍 각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대숙청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오꾜 (東京)에서 발간되는 교포일간지 統一日報는 21일 北傀정치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인용, 이번 대숙청작업이 金正日·吳振宇일파가 일거에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이미 연금중인 부주석 金一과 故崔賢및 金成부인 金聖愛계등의 관련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이때문에 北傀 黨·軍·政內의 심각한 대립상을 드러내 일대혼란이 빚어지고있다고 보도했다。

統一日報에따르면 宗派주의라는명목으로 金一계와故崔賢계、특히 蘇聯유학을다녀온 軍部의 중견간부가 대량 숙청되고있다。

駐레바논 佛軍 주둔연장 요청

제마옐、미테랑會談

【베이루트UPI=聯】레바논정부軍 특공대원들이 20일 레바논의 기독교및 회교민병대간의 평화유지를 위해 베이루트 남동쪽의 산악지대를 순찰하고 있는 가운데 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은 국제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프랑스軍의 주둔을 연장해주도록 프랑스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스라엘軍은 이날 베이루트남쪽 24㎞떨어진 산악지방으로부터 버스와 트럭으로 철수를 시작했으나 레바논정부가 이지역을 장악할충분한 병력과 장비를 파견할때까지 이지역에서 완전철수하지는 않을것이라고말했다。

제마옐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부터 파리에 도착、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회담하고 프랑스군의 레바논추가파견문제를 논의했다。

불꽃튀는 스페인 選擧戰

인 사이드

選擧공약 "나토脫退"… 최대 關心事로

社會黨 집권해도 軍部반발로 政情불안

오는 28일 총선거를앞두고 스페인政情이 극도로 불안하다。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이번 선거에선 펠리페·곤잘레스 (40) 가이끄는 社會黨이 現 소텔로수상의 민주중도연합(UCD)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은 금년초 곤잘레스당수의 출신지인 안달루시아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후 인기를 더해가고있다。그러나 이같은 사회당의 집권가능성과 비례해서 政情불안도 고조되고있다。

스페인보안당국은 지난1일 영관급장교들이 주동이된 쿠데타음모를 적발해냈다。지난75년 프랑코가 사망, 스페인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번째의 쿠데타음모였다。스페인은 쿠데타외에도 크고작은 테러사태로 시달려왔다。지난17일만 하더라도 모두 9건의 폭탄폭발사고가 발생、경찰의 발표등으로 4명의 사상자가 났다。

3번의 쿠데타는 민주체제를 무효화한다고 不信하며、사회주의에 대해서는 生來的이라 할만큼 혐오감을 갖고있는 極右軍부세력의 음모였다。반면 테러사태는 대부분 極左그라포(GRAPO)세력과 바스크분리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최근 적발된 쿠데타음모의 암호명은 「세르반테스作戰」。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소설 「동키호테」의 저자 이름을 따다 붙였다。

스페인은 지난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16번째회원국으로 가입했다。사회당은 현정부의 NATO가입결정으로 스페인이 得볼것이 없다면서 NATO탈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그렇잖아도 사회당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군부가 그들이 지지하는 NATO가입을 반대하고나선 사회당을 곱게 볼리 없다。

지난해2월 의회를 무장점거했던 不發쿠데타의 공격조장이었던 테헤로중령이『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를 몰아내는외에 다른방법이 없다』고 옥중에서 공언하고 있을정도。때문에 일부에선 이번 쿠데타 음모가 사회당이 집권하면 정치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기위한 對국민엄포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군부와 좌익 세력간의 적대관계는 과거 36~39년사이의 스페인 內戰때로 거슬러 올라간다。프랑코휘하의 군부가 당시 좌익정부에 반기를든 이 내전에서 군부가 승리、프랑코 장기독재의 길을 열었으나 쌍방간에 1백만명의 희생자를낸 피비린내나는 비극이었다。

現 소텔로 정권이 NATO 가입결정을 내린것도 정권욕에 사로잡힌 군부의 관심을 밖으로돌려 적을 안에서 찾을게 아니라 밖에서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곤잘레스사회당수도 군부개혁을 통해 군의 비대화를 막고 정치에서 군부를 배제시킬방침임을 은연중에 시사해왔다。

곤잘레스의 사회당이 NATO탈퇴를 선거공약으로 했으나 무조건탈퇴가 아니라 가입의 정당성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곤잘레스 스스로도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해 NATO탈퇴가 생각처럼 쉽지않을 것임을 시인했다。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반대파에선 NATO탈퇴공약이 집권욕에서 나온 선거전략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그들은 곤잘레스도 그리스의 現파판드루수상처럼 NATO탈퇴공약을 선거에서 승리한뒤 공약을 空約化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지난 79년5월 사회당대회때 곤잘레스는 마르크스노선을 黨憲규정으로 하는것에 반대、당수직을 사퇴했다가 그해 9월 임시당대회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수직에 복귀했다。

『왜 스페인 사회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스크바의 靜寂속에 30년을 살기보다는 뉴욕의 지하철에서 칼맞아 죽는 모험을 무릅쓰는 편이 낫다』。【林鍾乾기자】

民韓、警察停年단축 反對

民韓黨은 21일 국회法司·內務委소속의원 연석회의및 文公委 소속의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제출한 법안중 ▲경찰공무원법개정안▲전투경찰설치법개정안▲전투경찰설치법과 관련된 兵役法 개정안▲幼兒교육진흥법안에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개정법안에 반대키로 했다。

民韓黨은 이들 법안중경찰공무원 법개정안은▲경찰의 계급停年을 현경위16년에서 12년、경정14년에서11년、총경16년에서9년、경무관8년에서6년、치안감7년에서4년으로해 경위·경감등경찰의 中軸核이무너질 우려가 있고 ▲일반공무원停年을 연장하는데비해 경찰정년을 단축하는것은 형평의원칙에 어긋나며▲年金지급대상 경력도못채워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있고▲지휘권남용등의 금지에관한 법칙이 무거워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적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民韓黨은 또 전투경찰설치법개정안은▲경찰二元化로인반경찰·전투경찰에 마찰의소지가있고▲직업경찰의 신규채용중단으로 경찰의 質저하가우려되고▲사회경험이 거의 적은데다 연령이 적은전투경찰의 對民접촉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幼兒교육진흥법안은▲설립과 운영을 서울시、직할시및市·郡이 담당하고 필요에따라 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경영할수 있게 한것은 재정궁핍을 더욱 압박케할 여지가 많고▲설립認可權과 공동部令이 문교부와 내무부로 2元化돼있어 시행에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유아교육기관을 官主導型유치원과 새마을유치원을 제한하고있어 旣存의 다양한 유아교육활동이 불법화돼 민간의 교육활동및 기존교육기관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海外토픽

自家낙태臨床성공
★프로스타글란딘스利用

금년도 노벨의학상 발표로 의학계의 관심을 모은 프로스타글란딘스 (전립선 호르몬의일종) 를 이용한 자가낙태방법이 스웨덴연구진에 의해 개발、임상실험에 성공한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스톡홀름 카롤린스카병원연구팀의 일원인 덴마크출신 닐스·크리스텐센박사는 로이터통신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자가낙태방법이 지난2년동안 1백명의 스웨덴여성들을 상대로 임상실험한 결과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노벨의학상 수상자에 의해 지난 50년대와 60년대초 최초로 실체가 발견된 프로스타글란딘스가 고통을 경감시키는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분만시 자궁이 수축하도록 자극시킴으로써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도 하고있다고 말했다。【스톡홀름=聯】

◇萬里長城서 풍선旅行 美언론인 앨컴·포비스씨가 이끄는 일단의 美풍선여행가들이 20일 中共의 萬里長城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형풍선을 띄워놓고 西安市까지 자유비행을 했다。【北京20日AP電送=聯合】

本社來訪

▲洪文和씨(韓國自然健康食協회장)▲權肅杓(同副會長)▲李用周(〃副會長)▲宋寬律(事務總長)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現代史의 主役들★ <4>

◇지난59년 모스크바박람회 미국관에서 부엌논쟁을 벌인 흐루시초프(左)와 닉슨。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브레즈네프 (현 공산당서기장) 가 닉슨뒤에 서있다。

흐루시초프

多感하면서도 거칠어…변덕일쑤

"地位가 곧 능력" 40년간 음모·배신의 路程

1957년 늦게 모스크바의 한 외교리셉션에 나타나 손님들과 잔을 부딪치는 니키타·흐루시초프의 모습은 정말 기운이 넘쳐 흘렀다。어렸을때 하루 2코펙(1백분의 1루블)을 받고 돼지 몰이꾼을 했던 흐루시초프는 당시 권력의 정상에 서 있었다。그가 소련의 명실상부한 지배자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권력다툼에서 마지막 라이벌을 제압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흐루시초프는 퉁퉁 뚫듯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다。

그는 리셉션을 취재중인 일단의 서방기자들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옛날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었죠。그 속에는 사회민주주의자 한 사람과 무정부주의자 한 사람、그리고 작달막하고 초라하게 생긴 유태인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그 유태인의 이름은 「핀야」였는데 교육이라곤 엄치기로 받은게 전부예요。

이들은 빵과 차와 담배의 분배권을 갖게될 지도자를 선출키로 했읍니다。누구든 권력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정부주의자가 뜻밖에 핀야를 지도자로 뽑자고 제의했읍니다。그는 사실 빈정거리는 투로 핀야를 거론했던 것인데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찬성하게 돼 핀야는 그들의 지도자가 됐읍니다。

얼마안있어 이들은 감방벽을 뚫어 탈옥하기로 결심했읍니다。그러나 벽을 맨 처음 뚫고 나간 사람은 간수의 총격세례를 면할수 없기 때문에 앞장서려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이쯤 말을 마친 흐루시초프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앙돼갔다。

『이때 작달막한 핀야가 불쑥 나섰읍니다。핀야는 「동무들! 당신들은 민주적 방법에 의해 나를 지도자로 선출했소。그러니 내가 먼저 가겠소」라고 말합니다』

흐루시초프는『내 얘기의 뜻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지도자로 선출이 되고 나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그 작달막한 핀야가 바로 나요』라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다。

핀야가 흐루시초프 자신이라는 비유가 어떤 점에서 정확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여러가지 점에서 옳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결코 민주적 방법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도 아니며 핀야처럼 우연히 그렇게 된것도 아니다。

권력의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40년동안 그는 권력 두쟁을 벌였고 남을 할퀴어야 했으며 음모와 배신、숱한 살인을 자행했다。

1918년 볼셰비키에 가담하기 전까지 흐루시초프는 돼지사육사、탄광광부、파이프 상인으로 떠돌았다。20세가 될때까지 정식 교육을 받은 일도 없다。이런 하찮은 과거 때문에 그의 동료와 세상모두가 흐루시초프를 얕잡아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權座가 확실해진 1957년에 이르러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시골뜨기 皇帝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사람은 소련 天地에는 없게됐다。

흐루시초프 일생의 부침의 역사는 그대로 2차대전후 세계역사 진로에 극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敵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人民을 가두어 두기 위해 사상초유의 베를린 장벽을 쌓은 사람이 흐루시초프다。

1956년 헝가리 反共봉기를 짓누른 사람도、쿠바에 핵미사일을 반입한 것도 흐루시초프다。검은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소련이 공세를 시작한 것도 흐루시초프다。전략핵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 쿠바위기때 5대1로 열세에 있던 소련의 핵전력을 오늘날 처럼 미국보다 우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시작한 것도 흐루시초프다。

한편 공산주의의 退潮와 2차전후 가장 중대한 地政學的 사건인 중·소관계의 파탄을 책임져야 할 사람도 흐루시초프다。그의 적극적 외교공세와 몇가지 성공사례에도 불구、중공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외교적 실패로 기억될 것이다。

내가 만난 세계지도자들 가운데 그만큼 삼국인 사람은 없었다。그러나 어설픈 소련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행사할 줄 아는 그의 재간에 나는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워싱턴의 외교관측통과 사교계、심지어 관계외교관들까지 그를 과소평가했다。그 이유는 흐루시초프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소련말중에서도 저속한 말을 쓴다는 것이었다。

이런 평가는 흐루시초프가 구사하는 말뜻이 분명치 않은 어휘와 패션과는 거리가 먼것、세련되지 못한 기호들이 지도자로서의 효율성을 결코 격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그들은 우아한 매너가 반드시 강력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잊고 있었다。아무리 세련된 외모를 갖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잘 다듬어지고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치지도자로 성공할수는 없다。

◇두얼굴의 흐루시초프…유쾌하고 다감한면모가 있는가하면 이내 거칠어지고 좌중을 압도하려는 변덕꾸러기였다。

흐루시초프를 내가 처음 만난것은 1959년 모스크바에 미국국민박람회장을 개관키위해 소련을 방문했을 때다。

도착 다음날 상오10시 나는 흐루시초프와 첫 회담을 갖기위해 크렘린 집무실로 갔다。

그는 방한 구석에서 몇달전 소련이 발사한 달인공위성 루니크號의 모형을 살펴보고 있었다。내가 들어서자 그는 루니크 모형을 제자리에 갖다놓은 후 옹동없는 걸음걸이로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쥐는 힘이 대단히 강했다。내가 받은 인상은 그가 엄청난 활력과 거대한 육체의 힘、황소같은 정력의 소유자 같았다。

對西方 優位불구 中共잃은것 큰失策

긴 회의 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앉자 마자 그는 미국의회가 통과시킨「소련위성국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장광설의 비난을 시작했다。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자주 내리쳤다。

『이결의안은 구린내가 납니다。마치 금방 배설한 말똥냄새와 같소。이것보다 더 지독한 냄새는 없는 것이요』

나는 그가 구사한 것과 같은 비속한 말로 응대키로 결심했다。

『의장 말씀은 틀린 것 같소。말똥보다 더 구린 것이 있지요。바로 돼지똥이요』

흐루시초프의 관자노리에 굵은 핏줄이 섰다。금방 화를 터뜨릴 기세였다。

내 경험으로 흐루시초프는 두가지 상반된 면모를 갖고 있었다。

어느 때는 떠들썩하고 유쾌하며 사교성이 풍부했다。가끔 그는 내 옷깃을 잡아끌며 말을 걸었다。마치 내관심을 꽉 붙잡아 두었음을 스스로에게 확신이라도 시키듯이 말이다。자신의 말을 엿듣는 것을 살피기라도 하듯 주변을 두리번 거린 후 몸을 내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낮고 쉰 목소리로 소련군사기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특히 청중이 있을때는 돌변한다。거칠고 좌중을 압도하려든다。열변을 토하다가 나에게 다가와 발끝을 나란히 하고 집게손가락으로 내 늑골을 쿡쿡 찔렀다。마치 말로 찌른 것을 몸으로 찔러 강조라도 하듯이。

회담을 마친후 흐루시초프가 홧김에 내뱉은 숱한 말들은 점잖은 외교시대라면 선전포고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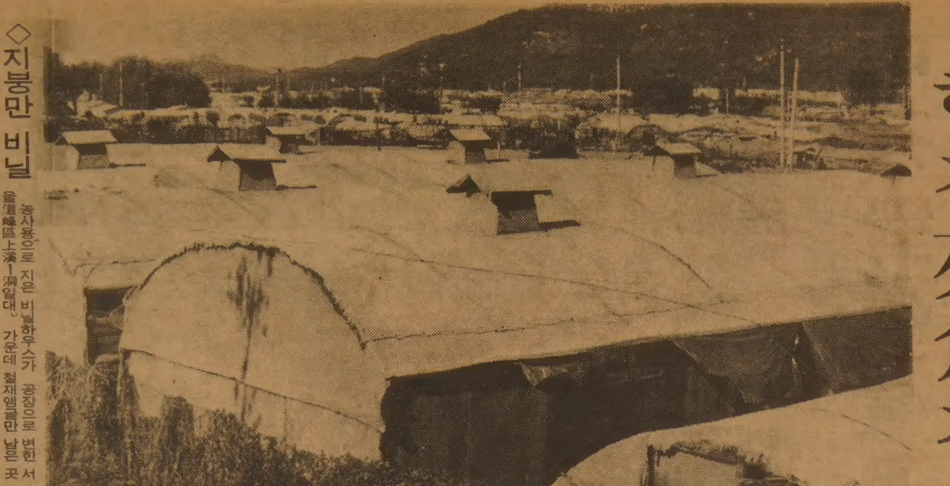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행정死角지대 살림집옆엔 畜舍도

賃貸料싼 서울上溪1洞등 밀집…電話도 가설



◇지붕만 비닐 농사용으로 지은 비닐하우스가 공장으로 변한 서울道峰區上溪1洞일대。가운데 철재앵글만 남은 곳은 지난달 화재로 한꺼번에 타버린 곳이다。

廢水와火魔의 온상 비닐하우스 工場村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주변에 농사용으로 등장한 비닐하우스가 밀집이된이후에 공장지대로 둔갑, 지난날의 판자촌과같은 형태의 비닐하우스 공장지대가형성되고있다。

지난70년대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이비닐하우스는 상·하수시설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공장폐수를 마구 흘려보내는가 하면 방화시설이 갖춰지지않아 화재가 자주나는등 공백지대의 독버섯화하고 있는것이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당초 채소재배등 농사를위해 만들어진것이나 도심지역의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세들어살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싼점을 이용,무허가공장으로 바뀌거나 축사로까지 변용되고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위한 비닐하우스는 서울의경우 江東區上一·下一洞일대 高德洞,江南區良才·細谷洞,江西區傍花洞등 주로 변두리 농지를 낀곳에 많지만 변용된것은 道峰區上溪·中溪·下溪洞일대에 몰려있는데 줄잡아 7백여동에 이르고있다。

이곳은 토질이척박하고 타산이 맞지않아 원래의 농민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대신 철거민이나 소규모공장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지주들에게 싼값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오기 시작했다。현재 이곳에는 가구 피혁의류봉제 아교 염색 신발 장갑등 각종 소규모 공장이 3백53동, 축사가 1백50동이나 들어서있으며 순수한 주거용은 1백여동이고 지렁이 양식장등 각종시설 1백여동도 몰려있다。

비닐하우스는 원래는 대나무나 철재앵글에 비닐을 씌워만든것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시멘트 블로크로 벽은 쌓고 내부시설을 하는등 지붕만 비닐을 씌운 가건물 구실을 하고있다。

이일대에 있는 아교공장등 각종공장과 축사에서는 유독성 폐수를 그대로 中浪川으로 흘려보내고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있으며 오물이 인근주택가에까지 흘러들어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등 각종벌레의 온상이 되고있다。

또 생활여건도 고지대의 달동네 사람들보다 더나빠 비닐하우스안에 방을만들고 전화까지 가설한곳이 30여군데에 이르고있으나 상하수도,화장실이 없는것은 물론 지하수로 밥을 짓고 빨래는 세탁용으로만쓰고 식수는 1㎞떨어진 인근 水落山에서 길어다 먹고있다。

또 갖가지 공장에는 페인트 휘발유 신나등 인화성 물질이 많고 비닐하우스안에 목재류가 쌓여있어 화재도 자주 일어난다。금년들어서만도 이 지역에서는 5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지난4월10일 상오4시30분께 가구공장에서 불이나 인근 비닐하우스10동을 순식간에태웠고 어린이 2명이 숨지기도했다。

지난달 23일에도 宋寶鉉씨(31)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이웃 12동을 모두태워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했다。

道峰區上溪1洞900의1 080임대 20여만평의 농지에는 이들공장외에도 2천4백여동의 영농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있지만 수백명에이르는 지주들은 임대료만받을뿐 사용목적에는 간섭할수없는 입장이고 관할道峰구청에서도 철거지시만내리고 강력한 단속을 펴지못해 변용되는 곳이 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5년째 이곳에서 가구공장을 해온 白命鉉씨(36)는 50평짜리 1동을 임대하는데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5만원이면 되기때문에 소규모 가내공장을 하기에는 싼 임대료와 도심에 가까운 교통편의, 넓은공간을 활용할수있어 자꾸늘어난다고 말하고있다。

서울시는 지난7월 中浪川정화사업 첫해의 상반기실적을 분석, 道峰區上·下溪洞일대를 가축사육제한 지구로 지정, 오염원을 점차 줄이며 영세아교공장·유지제조공장을 폐쇄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 70개동(전체허용44개동·일부허용26개동) 속에는 이일대가 포함되지 않았다。【趙明九기자】

유언비어 震源색출

裵법무「朴寬賢 死亡사건」에 밝혀

裵命仁법무장관은 20일 구속재판중 사망한 朴寬賢군(30·전全南大 총학생회장)의 사인과 관련,『악성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고 지적,『정부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유언비어가 계속될경우 그진원을 추적해 발설자를 찾아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법사위에서 밝힌 朴군관련 유언비어는▲朴군가 40일간 단식투쟁끝에 고문으로 죽었다 ▲교도소에서 朴군에게 건강에 나쁜 나팔꽃씨를 먹였다 ▲光州데모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 신영일군가 반죽음상태다 ▲光州교도소 소장이 일련의 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등이라는 것이다。

새벽 料亭털이에 징역20年

지붕뚫고침입 욕뵈고 強盜

【大邱】大邱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正洙부장판사)는 21일 大邱시내유명요정과 식당만을 골라가며 여주인을 욕보이고 금품을 강탈해온 金炳壽피고인(37·경기富川市遠美洞189의67)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및 강도 강간죄선고공판에서 징역20년(구형 사형)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피고인에게 욕을 당한후 눈이 맞아 金피고인이 훔쳐온 장물을 보관한 Y식당 여주인 朴모 피고인(41·大邱市中區鳳山洞)에게는 장물취득및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1년(금보석석방)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金피고인은 절도전과 6범으로 지난해 12월24일 새벽3시30분께 大邱市中區南一洞 S식당에 침입,주인 여모씨(28·여)를 협박해 현금45만4천원을 뺏은후 욕까지 보였으며 지난 4월7일 새벽4시30분께는 大邱市中區鳳山洞K요정에 침입,주인 모양(23)을 욕보인후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등 지난 4월중순까지 주로 새벽에 大邱시내 유명요정과 한정식당등 17개업소에 지붕을 타고 침입,강도 강간과 절도행각을 벌여 왔다는것이다。

한편 朴피고인은 지난3월 2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이 경영하는 Y식당(大邱市中區鳳山洞)에 金피고인이 침입,현금8만원을뺏고 욕을 보이자 그자리에서 눈이 맞아 金피고인과 자기집에서 동거를하면서 강탈해온 수표등을 보관해온 혐의로 함께 구속됐었다。【邱】

버섯栽培場 毒가스에 일가3명 窒息死

【水原】20일 상오11시께 경기華城郡松山面古浦2里 552 黃현수씨(63)의 버섯재배장에서 黃씨와 黃씨의부인 변갑희씨(53)·3남 인성씨(23)등 3명이 암모니아가스에 질식해 숨져있는것을 黃씨의 조카 백규씨(33)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黃씨가 올해처음으로 버섯재배에 손을댔던점을미뤄 버섯재배장을 소독하기위해 볏짚을찌다가 발생한 암모니아가스에 질식해 쓰러지자 부인과 아들이구하러들어갔다 함께변을당한것으로 보고있다。

黃씨등 3명이 숨진버섯재배장은 가로와세로가 3m씩으로 밀폐돼있다。【京】

트럭 언덕굴러 5명 死傷

【春川】20일 하오7시50분께 강원旌善郡臨溪2里 속칭 버들고개 내리막길에서 江陵市옥천양조장소속 강원7나8595호 1·4톤엘프트럭(운전사 우화식·24)이 길옆 쪽 8m 낭떠러지아래로 굴러 운전석옆에 타고있던 南창용(45·江陵市老岩洞)·朴종진씨(26·江陵市笠岩洞)와 트럭적재함에 탔던 金학기씨(26·江陵市洪濟洞108의13)등 3명이죽고 운전사 유씨와적재함에 탔던 金원기씨(26·江陵市老岩洞423)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원인은 운전부주의。

주인집딸 殺害기도

20代 평소앙심…房에 연탄화덕

【釜山】釜山鎭경찰서는 21일 애인과 싸움이 잦다고 주인이 꾸짖는데 앙심을 품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애인 주인집 딸을 죽이려던 金元道씨(26·釜山鎭區 楊亭1洞 山73)를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애인崔모양(26)과 자신이 잦은 싸움을 한다고 崔양집 주인 李모씨(35·釜山鎭區凡田洞)가 꾸짖는데 앙심을품고 지난20일 하오11시께 애인이 외출하고 없는 빈방에 연탄화덕을 들여놓은뒤 李씨의 집안방에서 혼자잠든 李씨의 장녀 李모양(10·국교4년)을 안아다 눕혀 놓았다가 李씨에게 발각됐다는것이다。【釜】

6·25때金日成車 美國서 釜山도착

【로스앤젤레스=聯合】6·25당시 金日成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을 거쳐 倭館까지 타고간 蘇製승용차 지스(ZIS)가 21일 釜山에 도착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문제의 金日成승용차는 50년 10월22일 平壤동북방 1백㎞지점에서 육군6사단에 鹵獲 노획됐다가 李承晩前대통령이 한국전에서 사망한 워커장군미망인에게 증정했었는데 워커장군미망인이 차를 미국으로 搬入, 사용중 고장을 일으키자 고물상에 6백달러에 팔았다는것。

그러나 유엔한국참전국협회(회장 池甲鍾)는 이차가 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년동안 수소문하던중 지난 9월15일 뉴저지에서 한 고물상주인으로부터 7만5천달러를 주고 구입, 뉴욕港에서 大韓船洲소속 다이어먼드號便으로 선적했으며 이선박은 21일께 釜山港에 입항할 예정。

密輸犯 金海공항을 노린다

규모大型化추세 절반이 在日同胞

【金海】金海국제공항을통한 밀수가 올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그 규모도 대형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밀수범의 절반가량이 재일동포로 나타났다。

21일 金海세관에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각종 밀수는 모두 1백2건에 2억7천99만6천원 상당인데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동기 85건 1억4백54만8천원에비해 건수는 20%, 금액은 1백68%나 각각 증가한 것이다。

또한 검거된 밀수건수 가운데 재일동포의 밀수는 50건에 1억2천9백47만8천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3건 2천6백77만4천원에 비해 건수는 3건이 줄었으나 금액은무려 3·8배나 늘었다。

세관관계자는 이처럼 올들어 각종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것은 일본의 계속된 불경기로 고국을 찾는 재일동포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현찰로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금괴·진주목걸이·시계등 값비싼 물건을 밀반입하고있다고 분석했다。【釜】

橫暴물의 眞露소주 지방7개업주 提訴

주식회사 眞露(대표 張翼龍)는 21일 금복주사장 金泓祚씨, 경월소주 崔慶雄회장, 보해양조 林廣幸회장등 지방소주업자 7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眞露는 숙창에서 이들지방소주업자 7명은 지난6일 국세청의 주정배정비율을 조정해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眞露의횡포규탄서를 관계당국에 내면서『眞露가 소주출고량을 부당하게 조절, 시장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인세등을 포탈"하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어음 네다바이 1억여원 챙겨

詐欺혐의 20代令狀

서울鍾路경찰서는 21일 金成演씨(28·주거부정)를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어음할인중개업자인 金씨는 지난3일 서울鍾路區鍾路3街37 태양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일간지에「어음할인」광고를 낸다음 지난 8일 낮12시께 광고를 보고찾아온 서울鍾路區堅志洞68영진해운 경리부직원 金在潤씨(26)로부터 아세아상선발행의 6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의할인을 의뢰받고『현금으로 바꿔 올테니 기다리란』며 金씨를 다방에서 기다리게한뒤 어음을갖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金씨는 이 어음을 서울中區明洞2街 사채시장의 어음할인업자 金모씨(36)등 2명에게 갖고가 1억1천7백만원에 할인, 서울江南區論峴洞에 싯가 2억원짜리 집을 사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永東호텔등 호텔을전전하며 유흥비로 써왔다는것이다。

서울地下鐵 시공때부터 事故134件에 死亡 70명

서울市 國會보고

서울시 2호, 4호선지하철공사장의 사고발생건수는 시공부터 현재까지 1백34건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70명을포함하여 1백72명인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호선의 경우 사고건수는 81건에 인명피해는 63건으로 나타났으며 3, 4호선에서는 53건에 1백9명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낙반16건, 상수도파열56건, 하수도파열 10건, 전화선로단절 3건, 전선절단 11건, 화재 5건, 교통사고 9건, 기타 2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건물은 5백11동이며 이건물에 대해서는 총9억4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년들어 징계조치를 당한 서울市비위공무원은 4백53명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86건, 공금횡령 26건, 업무처리소홀 2백25건, 무사안일 11건, 기타 1백5건이다。

이자료는 81년도 현재 서울시인구가 8백67만6천명이며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3·6%로 서울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트롤漁船에 불 알래스카灣 풍양號 1명만 失踪

【코디악(美알래스카주)聯】미알래스카만에서 조업중이던 韓國트롤어선 풍양호(3천5백72톤·고려원양 소속)에서 20일 화재가발생, 선원등 90명이 선박을 포기하고 탈출했으나 1명이 실종되었다。

美해안경비대는 풍양호에 타고있던 89명의 선원과 미수산당국에서 파견한 1명의 업저버등 90명이 배를포기하고 수온 섭씨6도에 파고4·5m의 거친 해상으로 탈출, 수분후 같은 원양어선단에속해있던 개양호에 의해 선원등 89명이 구조되었다고 밝혔다。【聯】

어제 警察창설37周 기념식서 奉仕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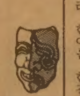
경찰창설37주년 기념식이 21일 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경찰관들은 禹사건등으로 실추된 경찰의 위신을 되찾기위해 국민과 국가를위해 더욱봉사하자고 다짐하고 정의사회구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경찰상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을 결의했다。

新聞 만화 投稿家 黃鶴松씨

11개의 假名

하루 15點그려 8개紙에 보내



매주 화요일에 실리는 한국일보 독자란에「권청자」란 여자독자의 시사만화가 자주 나온다。흥미를 느낀 기자가 權씨의 주소인 서울道峰區雙門3洞 138의20으로 찾아갔더니 주인공은 이 서글서글한 黃鶴松(사진·31)이란「남자」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에게 진상을 물었더니 신문에 투고해 벌어먹으려면 할수없다고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하루 15점의 만화를 그려 8개신문에 투고하는데 같은이름이면 잘실어주지않아 이름을 바꾼다는고백。이때문에 그의 만화의 필명은 아내인 權淸子(28) 아들 聖秀(5), 동생 鶴道, 사촌인 鶴九, 鶴伊, 鶴林을 비롯, 우리, 한아름, 한길도, 한송희등 11개나 된다。

작년9월 어느날 모신문 독자란이 필명을 달리한 黃씨의 그림과 글로 채워진일도 있었다는 고백이다。

군대생활할때 전우신문에 투고한게 인연이돼 지금도 일간지, 잡지에 쉬지않고 투고한다。주부수필을 써 다。黃씨만큼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광고까지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만화를 그린다。수필은 아내의 생활경험이 주로 소재다。

투고를 하다보니 일간지, 주간지의 편집취향을 터득했고 각 신문의 기호에 맞춰 꼭 같은 소재도 각도를 달리하면 어김없이 실린다는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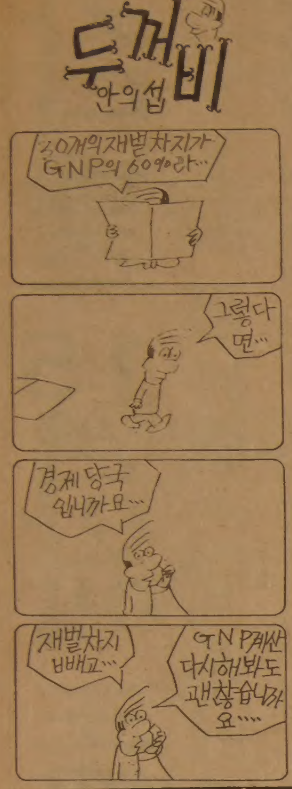
한달벌이는 30만원。10만원은 투고수입이고 20만원은 딱지, 공책표지를 그려 번다。만화 한컷 고료는 3천원。포스터 표어에도 많이 관여한다。공사장에서 눈에 띄는「안전점검 너나 없고 사고예방 휴일없다」도 그의 작품。

어릴때의 꿈은 사업가。특별한재능은 없지만 어릴때 만화나 포스터를 자주 그렸던 것이 도움이라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벌이는 보잘것 없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덤빈 집념의 산물이라고 보는편이 옳다는 주장이다。

잡지사에 취직하려다 거절당했다는 黃씨는 그이유가 아마 대학중퇴 학력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취업자격에 학력제한철폐」라는 볼멘 투고를 했는데 긍정적 응답을 못얻었다는 푸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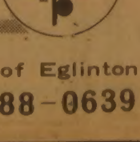
『세상인심이 본질적인 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도 지엽적인 일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고 날카로운 世評도 한다。【徐華淑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묵거리
B536-1692
H245-3539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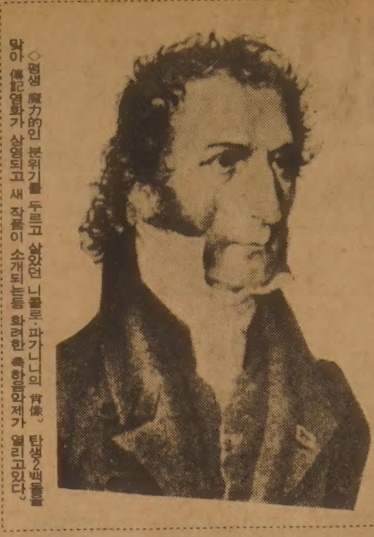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傳說의 바이얼린 鬼才 니콜로·파가니니

오는 27일 탄생 2百周…그의 음악세계



◇평생 魔力的인 분위기를 두르고 살았던 니콜로·파가니니의 肖像. 탄생2백돌을 맞아 傳記영화가 상영되고 새 작품이 소개되는등 화려한 축하행사가 열리고있다.

「鬼神들린 사람」이란 표현으로 비유 설명되는 니콜로·파가니니가 27일로 탄생 2백년을 맞는다. 탄생지인 이탈리아 제노아와 美國 파가니니樂譜협회등은 2백주년을 축하하는 파가니니페스티벌을 화려하게 베풀고 TV등에선 傳記映畵 「魔力의 바이얼린」을 방영한다. 「魔力의 바이얼린」은 파가니니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에 제작돼 수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새겨준 음악영화다. 파가니니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시대의 음악가로 베토벤보다 열 두살아래였다. 1782년 10월27일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출생, 평생 숱한 에피소드를 뿌리며 살았다. 음악사상 그만큼 많은 화제에 싸였던 인물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음악으로나 인생으로나 不可思議한 데가 많아 「귀신들린 사람」이란 異名으로 불리기도 했다. 훌쩍 큰 키, 깡마른 얼굴과 체격, 움푹 들어간 눈과 마른 풀잎처럼 흩어 헤친 머리등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신비감 도는 음산한 外觀을 지니고 있었다. 어렸을때의 이야기는 뚜렷하게 알려져 있는것이 많지 않으나, 평범한 소년생활에선 있을수 없는 기묘한 일화등이 전해진다.

G線音域 創始 技巧革命 불러

그는 바이얼린을 위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었다. 다른 악기보다도 크지않은 바이얼린 하나로 온갖소리를 창조해 바이얼린의 音域을 끝없이 넓혀주었다. 당시 바이얼린음악은 아직 풍부한 선율을 갖지못했었다. 파가니니는 다른 연주가들이 도저히 해내기 어려운 갖가지 기교를 바이얼린으로 연주해내 바이얼린기교에 혁명을 일으켰다. 그의 연주는 최고音에서 최저音인 G線까지 갑자기 뛰어내리곤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저 먼달에서 지구로 내려온 소리처럼 들린다』는 평을 들었다. 바이얼린 줄 하나만으로도 음악을 연주해 바이얼린표현의 범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0세되던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해진 처녀 니데체를 위해 나막신 바이얼린 연주회를 열었던일은 그의 귀신같은 연주기교를 설명해주는 유명한 사건이다. 처녀 니데체는 평소 파가니니 숭배자로, 아파 누워있는 파가니니를 찾아와 결혼을 해달라고 따뜻한 간호를 해주었다. 니데체는 곧 결혼할 처녀였지만 가난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파가니니는 자신을 간호했던 처녀에 대한 고마움으로 결혼비용을 마련해주기위해 나막신으로 바이얼린을 만들어 연주회를 가졌다. 그의 나막신 바이얼린 연주회는 1832년 12월31일에 열려 음악사상 유례없는 열광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각 지에서 소문을 듣고 밀려든 청중들은 초라한 나막신 짝에 줄을 엮어 만든 악기로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파가니니의 솜씨를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음악회가 끝난 뒤 청중들은 귀신에 홀린듯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파가니니는 연주회에서 얻은 입장권 수입금 전액을 가난한 처녀 니데체에게 안겨 주었다.

그는 음악가답지않게 理財에도 밝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타이프의 바이얼린을 20여개나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연주회때마다 모든 바이얼린을 골고루 가지고 나와서는 호기심을 일으킬만한 이채로운 연주회를 열곤 했다. 청중들은 「귀신처럼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경이적인 기교에 홀뻑빠져 신비스러운 奇人의 풍모를 흠모하곤했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연주기교에 맞추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최상의 기교를 갖춘 연주자만이 다룰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6개의 바이얼린협주곡과 24곡의 「무반주 獨奏카프리스(奇想曲)」는 바이얼린 작품 연보에서 단연 「걸작」으로 치는 작품들이다. 그가 죽은후 나타난 많은 작품들은 너무나 어려워 「연주 불가능」으로 사장돼 버리기도했다. 새로운 작품을 써서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했던 그는 자신의 음악세계와 연주기교에 대해 늘 침묵을 지켰다. 테크닉의 비밀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기가 쓴 악보를 보여 주지 않았다. 작곡하기까지의 과정도, 작곡하는 장면도 모두 감추고 숨겨 사람들로부터 『아마 귀신에게 혼을 팔아 작곡하고 연주한다는 모양』이라는 심한 평을 듣기도했다.

그의 작품중 「무반주 카프리스」는 파가니니자신이 다룰 수 있는 기교를 기준으로 작곡한 것이어서 악보 그대로 완전하게 소화해 연주할 수 있는 바이얼리니스트가 드물다. 지난 70년대 루지에로·리치가 처음으로 연주해내 레코드로 취입했을 정도다. 루지에로·리치는

難解한遺曲 거장 루지에로·리치가 160년만에 初演도

일생동안 파가니니음악만 파고들어 지난 77년에 파가니니「바이얼린협주곡 6번」을 작곡된지 1백60년만에 初演했던 巨匠이다. 평상 마력적인 분위기를 두르고 지낸 파가니니는 『비밀과 기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선배 음악가였던 슈만과 베토벤으로부터 「超人」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힌다. 리스트는 이탈리아에 가서 파가니니 음악을 듣고 크게 감동해 『나도 파가니니만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지 못한다면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후 7년동안 고심해 피아노곡 「화려한 대연습곡」을 내놓아 성공을 거두었다. 리스트의 기교는 바로 파가니니에게서 배운것으로 알려졌었다.

우리나라 음악계는 「바이얼린협주곡 1번」을 간혹 연주하고, 「무반주 카프리스」등은 아직 연주하지 않고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음악계는 파가니니 死後 「연주불가능」으로 사장돼 버렸던 작품들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파가니니 악보협회가 그동안 발굴해낸 몇작품들은 이번 탄생 2백주년을 맞는 페스티벌에서 소개된다.

요즈음 햇빛을 보는 작품도 현대 大家級 연주가들이 간신히 연주해낼 만큼 기교적으로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禹桂淑기자】

카디널즈 15년만에 王座탈환

월드시리즈 最終戰서 브루어즈 亂打 6-3

통산9번째…MVP에 捕手 대럴·포터

【세인트루이스=聯合】美프로야구 내셔널·리그의 명문 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가 아메리칸·리그의 신진 밀워키·브루어즈를 6-3으로 꺾고 월드·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했다.

20일밤(한국시간 21일상오) 세인트루이스의 부쉬구장에서 벌어진 美프로야구 챔피언전 월드·시리즈 최종7차전에서 홈팀 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는 1-3으로 리드당하던 6회말 3번 케이스·에르난데스가 2타점 동점타, 4번 조지·헨드릭이 결승타를 날리는 수훈에 힘입어 밀워키·브루어즈에 6-3으로 역전승, 4승3패로 우승했다.

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는 이날 승리로 67년 월드·시리즈 제패후 15년만에 王座를 탈환했다. 카디널즈는 1926년 첫우승후 내셔널·리그로서는 최고인 9차례의 월드·챔피언 기록을 세웠으며 월드·시리즈에서 자이안츠와함께 최다인 42승을 기록했다. 카디널즈는 68년까지 내셔널·리그서 12번 우승, 12번 정상도전하여 8번 성공했으나 내셔널·리그가 東·西지구로 양분된 69년이후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서도 우승 한번 못한채 시련의 14년을 보냈었다.

카디널즈는 화이티·허조그 감독이 81년 팀을 맡은지 2년만에 애틀랜타·브레이브스를 3연승으로 제치고 금년 시즌 내셔널·리그서 우승, 대망의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4차전까지 16타수 무안타로 잠들었던 카디널즈의 5번 에르난데스의 타봉은 5차전부터 불을 뿜기 시작, 29일 6회말 밀워키의 구원투수인 옛 대한동료 봅·매클러로부터 2타점 동점타를 빼앗아 역전승의 계기를 만들었다.

도미니카태생의 선발투수 조킨·앤더자는 3차전승리에 이어 무릎부상을 무릅쓰고 7회동안 7안타로 역투, 월드·시리즈서만 2승의 공을 세웠다.

카디널즈의 강타자이자 포수인 대럴·포터는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차지했다.

로널드·레이건대통령은 이날밤 오마하로 비행중인 전용기상에서 우승팀 카디널즈의 허조그감독에게 축하전화를, 패전팀 부르어즈의 켄감독에게 위로의 전화를 했다.

◇최종7차전

밀워키	000	012	000	─3
세인트루이스	000	103	02×	─6

▲밀워키 투수=버코비치·매클러(6회)·하스(6회)·콜드웰(8회) 포수=사이먼 ▲세인트루이스 투수=앤더라·서터(8회) 포수=포터 ▲홈런=오글리브(밀워키) ▲안타=밀워키7-15 세인트루이스

◇제79회 월드·시리즈

리그 팀	내셔널 세인트루이스		아메리칸 밀워키
1차전	×	0-10	○
2차전	○	5-4	×
3차전	○	6-2	×
4차전	×	5-7	○
5차전	×	4-6	○
6차전	○	13-1	×
7차전	○	6-3	×

◇최근 10년 월드·시리즈 전적

72년	오클랜드	4-3	신시내티
73〃	〃	4-3	메츠
74〃	〃	4-1	다저스
75〃	신시내티	4-3	보스톤
76〃	〃	4-0	양키스
77〃	양키즈	4-2	다저스
78〃	〃	4-2	〃
79〃	피츠버그	4-3	볼티모어
80〃	필리즈	4-2	로열즈
81〃	다저스	4-2	양키즈
82〃	카디널즈	4-3	밀워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崔東原·柳斗烈 아마活動 중단
소속팀韓電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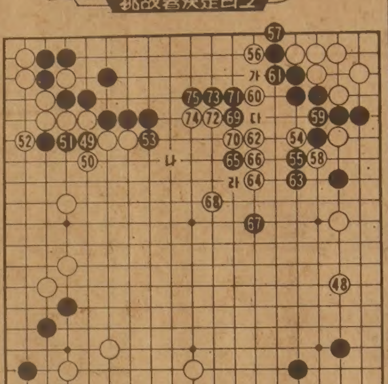
국가대표선수로 금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우승에 공을 세웠던 崔東原과 柳斗烈이 소속팀 韓電을 떠나 사실상 아마추어 야구선수 활동을 중단했다.

崔東原은 9월말까지 韓電과 약속한 촉탁근무를 마치고 현재 고향 釜山에서 프로입단을 준비중이다. 柳斗烈도 현재 실업추계대회에 참가중인 韓電을 이탈, 고향馬山에 머무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두선수는 지난7일 기준으로 선발한 日本원정 실업대표팀에서도 제외되었다.

한편 任昊均, 沈載元, 李海昌등은 실업추계대회에 참가, 아마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名人战 제14기 挑战者决定리그

第2局 第4譜 48~75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盧永夏
黑 (6段) 張秀英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작전을 실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대체로 직접행동을 하기 쉬운데 반하여 프로들은 사전공작을 철저히 연구한다. 그래서 때로 보는이가 어리둥절하게 되는 엉뚱한 수를 「천연히」 두어치운다. 일종의 권모술책이라기보다 프로의 고등전술이라 해야 옳을것이다.

이바둑에서 黑49, 51도 얼핏보기에 자살행위 밖에 아되지만 실상은 黑53을 보다 뜻있게 두자는 수법인데 실제로도 뒷날 이곳黑3점을 교묘하게

뜻있는 자살행위

이용하는 강타가 노림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53을 「가」면 상변은 안전하지만 白「나」를 허용해서는 좌변白집이 터도없이 커져서 黑은 승산이 없다.

한편 白도 54는 무리한수단 같지만 이것으로 白56을 두는 준비공작. 서로들 있는책략을 모두 기울인다.

白64까지 상변黑세가 초토가된 끔으로 白의작전은 일단성공이다. 그러나 56, 60, 62, 64가 날떠 있는 끔이어서 이곳의 공방전이 곧 승부로 직결될판이다.

黑은 과연 어떻게 출격의 포문을 여느냐. 張6단은 8분간 숙고끝에 黑65, 67로 공격을 개시한다. 그리고 黑69, 71의 멋진수순으로 실리를 확보한다.

참고로 白70을 「다」에 이으면 黑「라」로 나와 끊겨서 무리.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⑭

눈물겹다는 소리가 다시 좌중을 한바탕 웃겼다.

『여봐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수지가 손뼉을 짝짝 치면서 좌중의 주의력을 모으려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우선 식(食)을 즐기고나서 보자』

『크리스머스가 며칠 남았다고 그래? 그전에 하려면 지금부터 정신없이 몰아쳐도 빠듯해』

『재는, 우리의 기동력을 무시하고있어. 돈이 기름만 충분하면 이야기는 다 쌩쌩 돌아가게 돼있어』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과연 올릴수가 있을까?』

『밑천 생각 안하면 수익은 보장된 거 아니니?』

『밑천 생각 안하다니? 그럼 그게 어떻게 수익이 되니? 말도 안돼』

『그럼 넌 우리 돈은 한푼도 안들이고 수익금만 고아원에 보내자는 소리니?』

『그럴진 않지만, 우리가 들인 밑천보다 불어나야 애 쓴 보람이 있을거 아니니? 너희들은 지금 일 벌이는 재미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데 굴릴수록 불어나는 돈에 투자하느냐 오그라드는 돈에 투자하느냐, 이건 너무 중대한 문제다. 아무리 거기에 발들 매달고 하는 일 아니라도 돈을 좋여먹는다는 건 돈에 대한 모독이야』

『재가 부동산 몇탕 해먹어 재미 보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어떻게?』

『영악해 지고 똑똑해 지고…』

『예뻐지진 않았구?』

『욕심은, 제 손으로 돈벌면 예뻐지기까지 한다던?』

『그럼, 남편의 사랑이 배로 두터워지니까』

『그래?』

이번엔 좌중의 호기심이 교수부인 하영에게로 쏠렸다. 수지는 그들의 눈에서 일순 인광(燐光)이 번득이는 걸 본 것처럼 느꼈다. 왜 하필 인광이었을까? 인광이란 멸도 생명도 없는 묘지의 빛이거늘.

수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녀 역시 하영이 한 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김교수 그 세상물정 모르는 골샌님에게도 그런데가 있었니?』

『자기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학문에만 전념할수있었던게 뉘 덕인데? 있는 집 아들로 태어난 덕인데 돈이 고마운 거 모르면 배은망덕이게?』

『하영아, 그래 네가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니까 네 남편 사랑이 어떻게 달라지든? 응? 이것아 말 좀 해봐』

신여사가 그 육중한 살집을 아비하게 흔들면서 하영에게 바짝 무릎을 부비며 달겨들었다.

『언니도,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하영이 말보다 몸으로 말하려는듯이 온몸으로 교태를 지으며 육감을 풍기며 웃었다.

『우리 남편은 전혀 김교수 타입이 아냐. 내가 돈벌에 호기심만 좀 보여도 질색을 하고 욱박지른다우』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김교수도 입으로 말리는건 마찬가지야. 만약 잘못됐을 경우 거보라고 길길이 뛰면서 위신 세우려는 거고 돼지 한번 그래보는거야. 요새 남자치고 일확천금 해주는 아내를 꿈에 그리지 않는 남자 있는줄 알아?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건 완벽한 위선자일거라는 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상공인협회 창립공고

격변하는 경제 체제에 부응하려는 교포 상공인들의 시대적인 요구는 "상공인협회"의 출범을 재촉하였읍니다.

이제 저희는 교포제위께서 상공인협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선 지상을 통하여 인사 드립니다.

회고하면, 오늘의 교포사회 번영은 우리 모두가 피곤과 역경을 극복한 결과이며 한인사회 여러 단체의 협력과 희생의 덕이었읍니다. 특히 「실협」의 노고는 이같은 발전의 한 원동력이었으며 이제 「실협」이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성공은 교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실협」에만 의탁함은 「실협」에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실협회원 제위께 직접 관계되지 않는 직종에 경비지출의 희생을 요구하는 부당한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상공인협회」는 실협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종류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인들의 단체가 되어 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를 짐은 당연하다 하겠읍니다.

「상공인협회」는 미주각처및 고국의 상공인협회, 그리고 기타 북미의 여러 경제계와 유대를 갖고 시시로 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경영합리, 시장조사 등 의 기능을 담당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상공인협회」는 새로운 비젼을 갖고 출범했읍니다. 그 많은 일과 계획은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이의 참여와 교민 제위의 성원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나 희망과 노력 이 있으면 소기 목적이 꼭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역사는 관망함에 빛나지 않고 귀중한 미래는 현실의 참여없이 기대되지 않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도 「상공인협회」는 협조할 것이며 어느 분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협회가 될수 있도록 교포제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982년 10월

회 장·조 병 역
부회장·김 완 수, 정 창 헌

★ 임원진 ★
■ 기획총무 : 조성호
■ 홍 보 : 임윤식
■ 재무관리 : 이윤상
■ 섭 외 : 김용환

★ 감사 ★
이상수, 오현구, 정필주

이사장·김 무 호

★ 이사명단 ★ (가나다순)

● 곽호중 Speedy Printing
● 김무호 고려보석
● 김용환 Citywide Radiator Service Co
● 김석환 Kim's Art Gallery
●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 김정운 Academy TV & Stereo
● 김홍량 종합보험(Imperial Life)
● 김인태 —
● 김완수 Sun Printing House
● 박주상 Park's Brother 태권도장
● 백운산 Video Machine 도매상
● 송대헌 North York Auto Body
● 송창섭 Anchor Auto Body
● 이상수 Lee's Sign Ltd.
● 이윤상 Jinny's China & Gift
● 임윤식 Wilson Printing
● 연상만 Architect(건축설계사)
● 오현구 Richvale Heating & Cooling Co.
● 오원균 Tie City 등
● 장해웅 Oriental Bazaar
● 장영채
● 조성호 Picture Frame Warehouse
● 조병역 Kuzin's Restaurant
● 정창헌 Mississauga Auto Body
● 정필주 정필주회계사
● 전기덕 Master Auto Body
● 함태호 Ditto Fibreglass MFG
● 함병섭 동양한약상사
● 황용현 황용현부동산
● 홍진표 City Lite Signs Co.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 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 [illegible]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담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완인무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주인이 여러 가게 운영으로 그로서리 가게 매니저를 급히 구합니다.
전화 : 466-7698 Mrs. 정

입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5살 여자아이
전화 : 533-3545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맥스밀리에서 금·토·일 일할 헬퍼구함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주말에 도넛숍에서 일하실분 구함.
전화 : 977-0303 다운타운 지역.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버섯농장과 커다란집 매매함. 더이상 알고자 하시는분은 연락주세요. 영어 편지로 문의 바람.
FRANK MOLICA
R.R. #4 Bowmanville
Ontario, L1C 3K5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Space Rent
꽃·파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COIN LAUNDRY 급매코자 함.
(그린우드×코스본) 가격: $16,000
리스2년+옵션 전화 : 537-4910 Mrs.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
Ossington × Bloor.
전화 : 531-1023, 531-5005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Tuck Shop 급매
좋은조건으로 양도 하겠음. 직접내방 요망.
2233 Hurontario St. missi.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렌트: $450, 리스: 4년반
아스킹: $12,000+스탁. 전화: 654-470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Flower Shop 매매함. 스카보로지역. 생긴지 5년반되고 작은 Plaza내. 영업시간은 조절됨. 리스 약4년. 렌트 월 $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438-2411(저녁 7시이후)

◉Milk Cooler(문 5개 짜리), 깊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l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메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베출러 아파트 서부렛(Sublet) 합니다.
11월초 부터 입주 가능. 월: $168.-
전화 : 533-0668 (저녁 7시이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부사장(IC & I)
전화 : (B) 1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위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 ×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파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 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 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보십시요.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